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아동·가정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종단적 분석:
혼합연구방법 적용

Longitudinal Analysis of Infant Mother's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Application of Mixed Method Research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아동·가정복지학과

배아란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종단적 분석:
혼합연구방법 적용

지도교수 박 혜 원

이 논문을 아동·가정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아동·가정복지학과

배아란

배아란의 아동·가정복지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 영 주 (인)

심사위원 손 행 미 (인)

심사위원 박 혜 원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0년 12월

목 차

목 차.....	i
표 목 차.....	iii
그림목차.....	iii
부록목차.....	iii
국문초록.....	iv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배경	
1. 어머니의 양육지식	6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8
3. 어머니의 양육행동	10
III. 연구방법	
1. 혼합연구방법	13
1) 연구설계.....	13
2) 연구절차.....	15
2. 양적연구방법	17
1) 연구대상.....	17
2) 연구도구.....	18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20
3. 질적연구방법	24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특성	24
2) 자료수집	26
3) 자료분석 방법	27
4) 연구평가.....	28

IV. 결과

1. 양적연구결과	32
1) 예비조사	32
가.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32
2) 본조사	33
가.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기술통계	33
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 상관관계	34
다.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종단분석모형	35
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검증모형	37
2. 질적연구결과	40
1) 양육지식 부족의 원인 살펴보기	41
가. 양육지식의 다양한 경로.....	42
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민	46
2) 양육스트레스 증가의 원인 이해하기	49
가. 양육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	50
나. 감정의 혼란 속에서 힘들	55
다.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주는 부정적 영향.....	57
3) 양육행동에 대한 부정적 요인 분석하기.....	61
가.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	61
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	65
4) 양육행동에 대한 긍정적 요소 되짚어 보기	69
가. 스스로 노력하는 어머니.....	70
나.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	75
다. 긍정적 양육행동을 위한 지름길.....	80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86
2. 결론 및 제언	96

참고문헌	101
------------	-----

Abstract.....	113
---------------	-----

표 목 차

표 1. 한국아동패널 양육지식 질문지	18
표 2. 한국아동패널 양육스트레스 질문지	19
표 3. 한국아동패널 양육행동 질문지	20
표 4. 면담 참여자의 특성	25
표 5. 예비조사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	32
표 6. 예비조사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 상관	32
표 7.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시점 별 평균, 표준편차 및 기술 통계량	33
표 8.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 상관관계	34
표 9.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무 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의 적합도	36
표 10.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발달궤적 추정치	37
표 1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38
표 1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39
표 13.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에 대한 경험적 의미 분석 결과	40
표 14. 양육지식 부족의 원인 살펴보기	42
표 15. 양육스트레스 증가의 원인 이해하기	50
표 16. 양육행동에 대한 부정적 요인 분석하기	61
표 17. 양육행동에 대한 긍정적 요소 되짚어 보기	69

그 림 목 차

그림 1. 순차적 설명 혼합 방법의 연구설계	15
그림 2. 순차적 설명 혼합 방법을 사용한 연구절차	16
그림 3. 본 연구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22
그림 4. NVivo1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28
그림 5. 무 변화모형	35
그림 6. 선형모형	35
그림 7. 주제 분석 방법으로 분석된 주제 데이터 시각화	41

부 록 목 차

부록 1. 예비조사 설문지	109
부록 2. 면담 질문지	111
부록 3. 연구참여자 동의서	112

국 문 초 록

정보화와 IT 산업의 발달로 영유아 어머니들은 쉽고 빠르게 양육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로 혼란을 겪고 있고 자녀양육 과정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들이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가지 선행연구들을 통해 연구되고 있지만 양육관련 변인들이 종단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그리고 실제 어머니들의 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인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영향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변인 간의 종단적 분석도 필요하며 실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경험적 의미들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양적연구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실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경험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으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0~3세 영유아 어머니에게 필요한 부모교육과 양육 지원 서비스에 시사점을 인지하는데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혼합한 방법인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양적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변화양상은 어떠하며,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변화는 양육스트레스 변화와 양육행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변화는 양육행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실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경험적 의미를 심층면담을 통해 주제 분석 방법으로 탐색하였다. 세부적으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0~3세 영유아 어머니가 경험하는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양육을 위해 어떠한 양육지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양적 연구를 위해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자료 중에서 1차년도(2008)~3차년도(2010)에 모두 응답한 1537명의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기술 통계량을 각 시점별로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들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함수 추정을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이후 질적 연구는 0~3세 영유아 어머니 8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개별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고 자료분석은 주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내려진 양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았고 양육행동은 높아졌으며,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종단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점차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양육지식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역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둘째,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행동은 낮아지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종단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점차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의 경우 양육행동 수준도 낮으며,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는 양육행동의 감소를 가져온다.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육지식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양육기간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로부터 양육정보 및 지식의 획득과 양육경험의 축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기부터 걸음마기에 해당하는 0~3세의 시기가 어머니의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게 해 이 시기의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는 일정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육행동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경우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적연구 결과를 분석한 후 이어진 질적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0~3세 영유아 어머니가 실제 경험한 양육지식에 대해서는 ‘양육지식 부족의 원인 살펴보기’로 표현하였다. 0~3세 영유아 어머니들은 가족, 이웃으로부터,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부터, 육아전문서적, 부모교육, TV 양육관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로에서 양육지식을 얻고 있었으며 참여자들이 다양한 정보 속에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확한 양육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겪었던 고민과 습득한 지식을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술로 바꾸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양육지식의 다양한 경로’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민’으로 범주화하여 해석하였다.

둘째, 0~3세 영유아 어머니가 실제 경험한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양육스트레스 증가의 원인 이해하기’로 표현하였다. 0~3세 영유아 어머니들은 어린 영아를 양육하고 있거나 이제 막 영아기를 벗어나 걸음마기에 들어선 자녀의 양육으로 어머니 역할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원인과 양육지식의 부족 등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현대적 사회는 ‘남녀평등’과 ‘부부공동육아’를 지향하지만 아직은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현실과 다양한 양육지원제도가 있지만 선뜻 맡기기 힘든 현실점을 ‘양육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과 ‘감정의 혼란 속에서 힘듦’ 그리고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주는 부정적 영향’으로 범주화하여 해석하였다.

셋째,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가 실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양육행동에 대한 부정적 요인 분석하기’로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원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 양육경험과 이기적인 양육 문화 등 현대사회 양육지식부족의 원인에서 기인한 문제점으로 인해 양육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일상생활 중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증가하는 양육스트레스 증가로 양육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으로 범주화하여 해석하였다

넷째, 0~3세 영유아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양육행동에 대한 긍정적 요소 되짚어 보기’로 표현하였다. 0~3세 영유아 어머니들은 양육지식의 부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육아동지들과 함께 경험과 정보, 지식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얻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양육지식을 쌓고 양육스트레스를 이겨 내었다. 또, 그들은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에 위로와 감동을 받고 가족들로부터 힘을 얻으며 양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긍정적인 양육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노력하는 어머니’와 ‘튼튼한 가족의 울타리’ 그리고 ‘긍정적 양육행동을 위한 지름길’로 범주화하여 해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중요성과 양육스트레스 감소의 필요성을 밝혀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위해 어머니 스스로의 노력과 사회적 지원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자녀의 발달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며 자녀를 이상적으로 발달하도록 촉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0~3세 영유아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화사회에서의 쉽고 빠르게 습득하는 다양한 양육지식들은 오히려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양육지식 습득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현대사회 가족구성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약화, 원부모와의 부정적 양육경험 등은 어머니의 양육지식 부족현상을 초래하였고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너무 다양하고 빠른 지식의 습득은 오히려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에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양육과정은 어머니로서의 역할부담과 개인정체성의 상실, 양육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증가하게 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어머니들은 영아기와 걸음마기로 이어지는 힘든 양육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양육스트레스의 점진적 증가, 양육지식의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이 시기 어머니들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올바르지 않은 양육지식의 습득과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부정적 양육행동의 증가시키며 양육스트레스의 점진적인 증가는 시간 경과에 따라 부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영유아기에는 어머니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가족과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며 부부공동육아, 가족의 사회적 지지, 국가적 차원에서의 양육지원제도의 확대 등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0~3 세 영유아 어머니는 항상 시간의 부족을 느끼고 신체적 피로와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경험하므로 꼭 필요한 양육지식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줄 수 있는 양육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육지식은 양육행동의 근원이 되고 영유아의 행동발달에 대한 지식은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부모의 기대는 자녀양육에 있어 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기도 하며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취하게 된다(이송은, 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대부분에게 있어 자녀의 영유아기는 그들의 인생주기에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모 됨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이주연, 2010).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는 이 시기의 발달특성과 부모의 양육유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경하, 서소정, 2009).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신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자녀를 위해 즉각적이고 반응적인 어머니 역할에 대한 올바른 양육지식이 필요한 것이다(김정미 외, 2013).

현대사회에서 부모들이 접하는 양육지식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문화의 일부로서 그 문화의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게 된다(Goodnow, 1984). Goodnow(1984)는 문화 속에 포함된 발달에 관한 양육지식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비형식적인 정보가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은 주로 책, 잡지 등의 출판매체와 소아과의사, 유아교육전문가 등으로부터 습득되고 비형식적인 정보는 주로 양육경험자로부터 얻어진다고 하였다. 자녀를 둔 현대의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은 수많은 육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양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소통한다는 점에서 Goodnow 의 문화전이에 의한 양육지식의 성질을 가진 도구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육아 전문 서적을 볼 수 있고 육아 전문가와 양육경험자로부터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다(서혜성, 2014). 현대의 어머니들은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너무 스마트폰에만 의존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를 맺으며 양육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양육에 대한 많은 정보에 쉽게 접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가치관에 기반을 둔 지식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송연숙, 김영주, 2008). 이는 오로지 스마트폰을 통해 양육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잘못된 지식과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서혜성, 2014).

실제로 정보통신기술발달로 인해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어머니들은 스마트폰 등을 사용한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어머니를 빗대어 ‘독박 육아’, ‘전업맘’, ‘워킹맘’, ‘슈퍼맘’, ‘골드맘’, ‘경단녀’ 등의 어머니들 자신을 지칭하는 신종어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어머니들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양육정보나 양육지식, 지역사회에서의 정보들을 습득하거나 나누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하소연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도 하면서 ‘온라인 임신육아카페’나 ‘육아블로그’ 등의 온라인 소통공간을 자주 찾는다. 또한 요즘 어머니들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육생활을 공개하며 또래 어머니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좋은 양육방법이 있으면 나누기도 양육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고 외부와 소통을 유지하며 온라인 공간을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온라인 공간 속에 넘쳐나는 정확하지 않은 양육지식과 육아 트렌드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를 습득하게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급속한 발달과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예전보다 준비가 덜 된 채 부모가 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어머니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경험 부족으로 양육문제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이혼, 저출산 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고 있는데 가족구성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하여 양육 역할에 대한 모델 부족, 자녀양육에 대한 준비부족, 양육경험 부족 등은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켜 양육스트레스를 더욱 야기시키기도 한다(정윤주, 채진영, 2010). 현대 사회의 부모는 급격한 핵가족화, 증가하는 맞벌이 가정, 지나친 영유아 조기교육 열풍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이 증가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져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된다고(김미정, 하지민, 2013)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영유아 어머니들의 부정확한 양육지식 습득, 경험적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양육지식 부족과 여러 원인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증가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반대로 영유아 어머니들이 정확한 양육지식을 습득하고 양육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면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양육지식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함과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양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둔는다(도현심 등, 2009). 또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에 대해 강압적,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정적 양육행동을 하였고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수록 자녀에 대해 온정적, 수용적인 방법으로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장선희, 2018). 이와 같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위해서는 현대사회에 맞게 적절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양육지식을 습득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대부분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관련 선행 연구들이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 우울, 양육 효능감,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거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양육 효능감 등의 주요 변인들과 관계를 살펴본 것에서 오롯이 어머니라는 중심적 인물에 초점을 맞춰 현대사회 어머니의 양육변인 중 주변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을 주요 변인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출산 후 3 년동안 일정한 선행 패턴을 가지고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최효식, 연은모, 권수진, 홍윤정, 2013; 이정숙, 방영숙, 배장오, 2016)의 결과를 토대로 양육지식, 양육행동 간의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0~3 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해 보고 더불어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심층면담을 통해 실제 경험에서 느끼는 바를 현대적 시각에 초점을 맞춰 세 변인간에 서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한다.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관한 종단적 분석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게 되며 이 연구에서는 혼합연구 설계모형 중 순차적 설명 혼합 방법(explanatory sequential mixed method) 설계를 이용하여 먼저 양적 자료를 먼저 수집한 후 양적 자료의 결과를 면밀한 질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게 된다. 먼저 양적 단계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자료 중에서 2008 년 1 차년도부터 2010 년 3 차년도까지 총 3 개년도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되며, 이 자료를 이용하여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관계의 종단적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의 질적 단계는 양적

결과를 잘 설명하기 위해 양적 결과에 추가하여 수행하게 될 것이다. 개인 심층면담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경험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관한 주제의 의미를 밝히고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로부터 생성된 의미를 주제 분석 방법(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여 탐색할 것이다.

그 결과를 통해 0~3 세 영유아 어머니들이 현대 사회에 맞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육과정에 꼭 필요한 양육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방법과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0~3 세 영유아 어머니를 위한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양육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0~3세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이 종단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경험적 의미를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함으로써 0~3세 영유아 어머니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방법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은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1-2>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변화는 양육스트레스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3>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변화는 양육행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4>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는 양육행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0~3 세 영유아 어머니는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해 실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2-1> 0~3 세 영유아 어머니는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실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2-2> 0~3 세 영유아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는 실제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3> 0~3 세 영유아 어머니가 경험하는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4> 0~3 세 영유아 어머니는 양육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어머니의 양육지식

0~3 세는 모든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0~3 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특히 첫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 발달과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양육지식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MacPhee(1984)는 양육지식을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는 연령에 따른 자녀의 이상적인 발달 상태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는 발달지식, 두 번째는 자녀의 이상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양육방식, 세 번째는 영유아기 경험의 중요성 및 개인차에 관한 발달원리이다. Goodnow(1988)는 양육지식을 주양육자가 알고 있는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적 발달 영역의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정도로 정의하였고,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아동 발달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양육지식이라고 하였다. Benasich & Brooks-Gunn(1996)은 양육지식을 자녀의 발달을 지원해주고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과 정보로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윤형주(2002)는 양육지식을 어머니가 영유아 양육실제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정도이며, 주양육자가 아동의 신체발달, 사회성발달, 인지발달, 정서발달 영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라고 하였다. 최유리(2005)는 양육행동 및 정상적인 아동 발달이나 아동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지식을 양육지식이라고 정의하였고, 박수연(2005)은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바람직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반적인 아동 발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양육지식이라고 하였으며, 바람직한 부모역할 수행과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곽지애(2016)는 양육지식을 양육정보와 육아정보와 비슷한 용어로 정의하고 양육정보를 현대의 어머니들이 체계적이고 적합한 양육방식 정보와 양육에 관련된 지원을 받고 싶어하며 아이를 기른다는 뜻의 '양육'와 어떤 자료나 소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소식의 전체적인 것을 '정보'라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양육지식은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어머니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과거 윗 세대와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었던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고 있으며(서진영,

이주연, 2013). 또한, 전문화된 학교 교육으로 인해 유아교육이나 아동 및 보육 관련 전공이 아니면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채 부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서혜성, 2014).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자녀의 양육경험에 의해 축적되지만, 자녀가 성장해감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양육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민현숙, 문영경, 2009).

양육지식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의 연구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경향으로는 부모의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연구(김은정, 2004; 전지혜, 2007), 두 번째 연구경향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양육지식 변인에 따른 양육지식에 관한 차이에 관한 연구(윤형주, 2002; 이주연, 이석호, 2010; 홍순옥, 김성혜, 2008), 그리고 세 번째 연구경향으로는 양육스트레스나 효능감, 양육행동 등과 같은 양육관련 변인과 양육지식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선애, 한유진, 2009; 이선미, 장정미, 2009; 이주연, 2009; 양미선, 김양은, 2012; 이송은, 2012;)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연구 경향 에서와 같이 양육관련 변인인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지식은 양육부담감을 감소시켜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하며(양미선, 김양은, 2012), 자녀양육지식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함과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양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도현심 등, 2009, 재인용).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기술 사용과 발달에 적절한 환경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자녀양육을 수행하게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게 된다(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

양육지식은 양육행동의 근원이 되고 영아의 행동발달에 대한 지식은 영아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부모의 기대는 자녀양육에 있어 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취하게 되며(이송은, 2012, 재인용), 그리고, 정확하고 높은 수준의 양육지식은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 및 유능감을 갖게 할 뿐 아니라(송연숙, 김영주, 2008),

각 발달연령 시기에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윤형주, 조복희, 2004).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양육지식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현대에 와서는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양육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양적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에서 KIDI(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MacPhee, 2002)의 양육행동(parenting), 발달원리(principles),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 발달 기준 및 지표(norms and milestones) 등 4가지 하위영역 중에서 발달원리 영역의 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단적 연구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질적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얻는 경로와 양육지식으로 인한 양육행동의 경험에 대해 기술하고 고찰하였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역할 부담에서 오는 내적 긴장이나 일상적인 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 등이 증가하여 나타난다(Abidin, 1992). 또한, 가족체계 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긴장과 압력, 자녀양육으로 부모가 느끼는 곤란이나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양육스트레스로 보고 있다(임순화, 박선희, 2010).

Abidin(1992)은 양육스트레스를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보았고 이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 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첫 번째 하위요인은 ‘부모의 고통’으로 부모가 부모 역할을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모 개인적인 고통은 부모의 우울, 개인역할의 제한, 사회에서의 고립,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이다. 두 번째 하위요인은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기대가 일치하는 않는 것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자녀의 수용성,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강화, 부모의 애착과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하위요인은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로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이는 타고난 기질과 학습된 행동 모두를 포함하며 행동 특성상의 문제를 자녀가 가지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녀의 적응성, 요구, 기분 활동수준을 포함한다(가족스트레스 연구회, 1994: 김재현, 2014).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얻는 과정에서 역할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영유아에게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힘이 들기 마련이며 가부장적 사회문화에서 자란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을 집중적으로 할 것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부여받고, 이로 인해 어머니로서의 욕구와 성인 여성으로서의 욕구가 때때로 서로 갈등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다양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서영민, 2011), 온종일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게 될 수도 있다(오은애, 2013).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취업모와 전업모의 자녀가치, 양육지식, 자녀미래기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다. 가구소득에 따라 부모의 자녀가치 및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옥경희, 천희영, 2012)에서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도구적 가치는 중간 소득 집단에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결혼 만족도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연은모, 최효식, 2015)에서는 정서적 자녀가치가 전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여 정서적 자녀가치가 긍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변화한다는 결과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양육지식 습득을 통하여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임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이희정, 2014; 정미라, 최혜정, 강수경, 2015).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선행연구들 중 양육스트레스의 종단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자녀가치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종단적 분석한 양진희(2015) 연구에서는 과거의 자녀가치가 미래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양육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사하게 과거의 양육스트레스는 미래의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녀가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종단연구로 수행한 정미라, 최혜정, 강수경(2015) 연구에서는 영아기 양육스트레스는 영아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시점 간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 간의 인과적 종단관계>를 분석한 황성온, 황지온(2015) 연구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해 부적 상관성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적게 나타났음을 의미하였으나, 과거 한 시점에서의 양육스트레스 수치는 이후 양육태도에 대한 변화율에 대해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변화양상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어머니의 급격한 부정적 양육태도 변화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측면에서 수치의 급격한 증가를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지식, 자녀가치, 자녀미래기대, 가구소득, 아버지 양육참여, 결혼 만족도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녀의 발달,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자녀와의 관계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양적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하위 요인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발췌하여 제시한 데이터를 통해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단적 연구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질적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원인과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양육행동의 경험에 대해 기술하고 고찰하였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행동, 양육스타일, 양육태도는 학자에 따라 태도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으나 대부분 혼용하고 있다(이형민 외, 2008). 양육행동 (parenting behavior), 양육스타일(parenting

style), 양육태도(parenting/rearing attitude), 훈육(discipline)등의 용어가 해석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용어로 전환되기도 한다(서진영, 2013).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행동으로 생후 초기의 부모역할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의 온정이나 애정과 같은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 등 긍정적 발달결과와 관련되고, 거부 및 통제와 같은 특성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나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발달결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김민정 외, 2013).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형을 나누는 여러가지 관점이 있으며 학자들에 의해 달리 제시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처음으로 이론화한 Symonds(1949)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으로 행동하는지 거부하는지에 따라 수용-거부형(acceptance-rejection), 부모가 자녀를 지배하는지 복종하는지에 따라 지배-복종형(dominance-submission)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분류하였다(윤정원, 2015). Symonds의 유형 구분은 처음으로 부모-자녀 간 양육행동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들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양육에 대해 건전한 태도가 없이 부정적으로만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이월영, 1983).

Schaefer(1959)는 양육행동에 대해 애정-적대(love-hostility)와 자율-통제(autonomy-control)의 2개의 축으로 분류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행동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양육행동은 애정적-자율적 행동, 애정적-통제적 행동, 적대적-자율적 행동, 적대적-통제적 행동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으며 애정-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민주적으로 유지,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협동적이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태도로 대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자율적이면서 애정이 있는 태도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부모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피하는 유형이다. 애정-통제적 양육태도는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로 자녀에 대해 엄격한 부모의 태도를 말하며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지만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유형으로 자녀의 삶을 어른의 경험과 요구를 비추어 통제하는 유형이다. 거부-자율적 양육태도는 방임형 양육태도로서 부모들은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며 자녀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둔다. 거부-통제적 양육태도는 독재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행동을 체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며, 권위적·독재적이고 요구를 반복한다(이은경, 2015).

Baumrind(1967)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권위있는(authoritative) 행동, 권위적인(authoritarian) 행동, 허용적인(permissive)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권위있는(authoritative)’ 부모는 자녀에게 온정적이며 수용적이며 자녀를 존중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며 부모의 권위를 보이는 행동을 하고, ‘권위적인(authoritarian)’ 부모는 무조건 자녀가 복종하도록 기대하고 자녀의 통제를 위해 체벌과 강압을 사용하며 부모의 결정에 따르길 강요하며, ‘허용적인(permissive)’ 부모는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관대하나 명확하거나 일관된 기준이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자녀를 통제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에 대해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어 연구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의 애착형성, 사회성 발달, 언어 및 인지적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Ainsworth 외, 1978; Lasko 외, 1999).

배성희(1995)는 부모가 유아기 때 습득한 애착체계는 자녀를 양육할 때의 양육행동을 결정한다고 하였고, Strand와 Wahler(1996)의 어머니의 대상관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 양육자의 경험을 통해 내재화된 어머니의 애착이 자녀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어머니의 불안정한 애착이 분별없는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문영경과 민현숙(2012)은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활발하고 사교적으로 행동하거나,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는 자신의 능력에 믿음과 신념을 갖게 되어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 중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기질, 아동의 발달특성, 부모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문영경, 민현숙, 2012; 백은주, 강민정, 한선아, 2012; 전홍주, 최유경, 최향준, 2013; 황성온, 황지은, 2015)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양적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에서 PSQ의 3개요인 중 어머니의 온정성과 반응성을 포함하는 ‘사회적 양육유형’을 데이터로 제시하였고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단적 연구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질적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해 기술하고 고찰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혼합연구방법: 순차적 설명 혼합설계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양적연구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실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경험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으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0~3 세 영유아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과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혼합한 방법인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을 사용하였다.

혼합연구방법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단일적으로 진행할 때보다 연구문제를 보다 넓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연구자들이 점차 많이 활용하고 있다(Creswell, 2017). 혼합 연구방법은 양적연구자료와 질적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두 가지 연구의 자료를 통합하며, 철학적인 가정과 이론적인 틀을 포함하는 통합된 설계를 이용하여 탐구하기 위한 접근이다. 이 연구방법은 연구문제를 더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결합이다.

혼합연구방법의 사용에 대해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으나 연구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측면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연구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 또한 제기되고 있다(Abbas & Charles, 2001).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에 대한 강점과 약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여지고 있다. 양적연구의 강점은 이론과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며, 많은 변인들의 혼합된 효과를 제거해 관심 있는 변인들만의 인과관계를 숫자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양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료수집과 분석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며, 정책 결정자나 연구 자금 지원자들에게 보다 설득력을 갖는다(Johnson & Onwuegbuzie, 2004). 반면 질적연구의 강점은 관심있는 현상에 대하여 깊이 있게 그 과정을 깊이 있게 그 과정과 맥락을 연구할 수 있고, 복잡한 현상을 기술하는데 유용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상세하게 내부자의 입장에서 알 수 있으며, 독자에게 현장의 상황을

일반인의 언어로서 생생하게 보고할 수 있으며, 현상에 대한 귀납적이며 잠정적인 그러나 설명적인 이론을 창출할 수 있다(Donmoyer, 1990; Schofield, 1990).

하지만, 양적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자를 이해하는데 있어 상황적인 맥락과 연구 대상자의 직접적인 진술이나 의견들을 연구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질적연구방법은 연구자들의 지나친 편견들이 반영되거나 연구결과에 이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혼합연구방법은 이러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취약성들을 보완할 수 있다(최경화, 2020).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보면 대체적으로 양적연구의 단점이 질적연구의 강점이 되며 또, 질적연구의 강점이 양적연구의 약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두 가지 방법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의 장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방법을 통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통합연구는 한 가지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Tashakkori & Teddlie, 1998).

학자들의 혼합연구방법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Tashakkori와 Teddle(2003)는 연구문제, 연구방법, 자료수집, 분석 절차 및 도출에서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연구설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Johnson과 Onwuegbuzie(2004)는 연구자가 단일연구 내에서 양적/질적연구기법, 방법, 접근, 개념 용어를 통합 혹은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연구로 정의하고 있다.

혼합연구방법은 단일연구에서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며, 양측의 양립 가능성과 실용적 접근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한 채 그것들이 가진 감점을 제고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좀 더 온전하고 광범위한 답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최경화, 2020).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구 설계모형 중 순차적 설명 혼합 방법(explanatory sequential mixed method)을 사용하는데 순차적 설명 혼합방법은 연구자가 양적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한 다음 그것을 질적연구와 함께 더 자세히 설명하여 결과를 굳건히 하는 방법(Creswell, 2017)이다. 구체적인 순차적 설명 혼합 방법의 연구설계는 <그림 1>과 같다.

	1 단계	2 단계	전체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연구방법	양적연구 한국아동패널조사를 통한 분석	질적연구 심층인터뷰를 통한 분석	
연구목적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종단적 분석	양적연구의 결과를 보다 정교하고 심층적으로 이해	
연구대상	한국아동패널 1 차년도~3 차년도까지 응답한 영유아 어머니 1537 명	목적표집을 통해 모집한 영유아어머니 8 명	
혼합연구	양적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질적데이터 수집 및 분석	

그림 1. 순차적 설명 혼합 방법의 연구설계

2) 연구절차

순차적 설명 혼합 방법을 위해 1 단계 양적연구 단계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1 차년도(2008) ~ 3 차년도(2010)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2008 년도 4 월에서 7 월 사이에 출생한 2,150 명의 신생아 가구 중 2008 년 1 차년도부터 2010 년 3 차년도까지 총 3 개년도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무응답을 제외한 최종분석에서 활용된 자료는 1537 명의 자료이다. 2 단계 질적연구 단계에서는 2020 년 3 월~ 4 월까지 예비연구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중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여 2020 년 8 월~ 9 월까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1~2 회 실시하였고 회기당 1~2 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녹음한 내용은 녹취록을 푸는 다글로 프로그램과 NVivo12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 코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사용하였다. 순차적 설명 혼합 연구를 사용한 본 연구의 연구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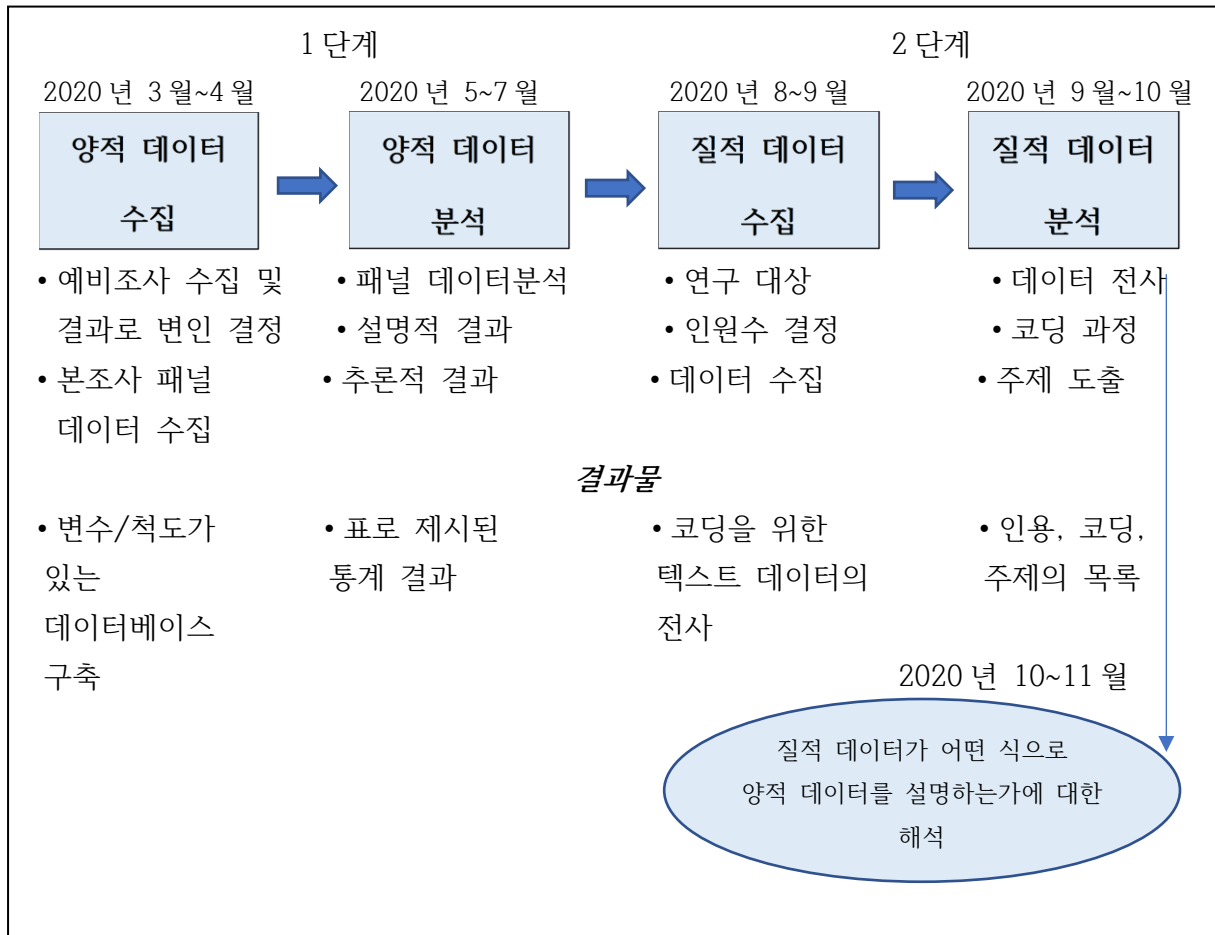


그림 2. 순차적 설명 혼합 방법을 사용한 본 연구의 연구절차

2. 양적연구방법

본 연구는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해 종단적으로 분석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상관을 알아보는 것으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통하여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가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어머니가 0~3 세를 양육함에 있어 필요한 양육행동에 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서 본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양적연구방법의 연구대상과 연구도구, 연구모형 <그림 3>을 도출하였다.

1) 연구대상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1 차년도(2008) ~ 3 차년도(2010)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2008 년도 4 월에서 7 월 사이에 출생한 2,150 명의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며 1 차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매년 조사를 진행하여 현재는 7 차년도(2014)까지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 년 1 차년도부터 2010 년 3 차년도까지 총 3 개년도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무응답을 제외한 최종분석에서 활용된 연구대상은 1537 명이다. 분석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의 성별은 남아 784 명(51%), 여아 753 명(49%)이었으며 연구대상인 어머니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력은 고졸 이하 492명(32%), 전문대졸 이하 451명(29.3%), 대졸 이상 594 명(38.7%) 이었다. 또한, 1 차년도에는 소득활동여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471 명(30.6%), 학생 및 전업주부가 1,066 명(69.4%)였고 2 차년도에는 소득활동여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468 명(30.5%), 학생 및 전업주부가 1,069(69.5%), 3 차년도에는 소득활동여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501 명(32.6%), 학생 및 전업주부가 1,036 명(67.4%)로 미세하게 1, 2 차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가. 어머니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KIDI(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MacPhee, 2002)를 사용하였는데, KIDI 는 영아용과 유아용(KIDI-P)으로 구분되며, 양육행동(parenting), 발달원리(principles),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 발달 기준 및 지표(norms and milestones) 등 총 4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이 중 발달원리 영역의 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아이들은 말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줘도 얼마 동안은 종종 틀린 말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은 그 아이의 지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의 모든 언어는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함으로써 습득된다.’ 등을 묻는 1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문항은 <표 1>과 같다.

양육지식은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의 범위에서 응답되며, 정답인 경우 1 점, 틀리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 0 점으로 하여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 발달 원리에 대한 양육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지식에 대한 신뢰도 값은 Cronbach α =.524(1 차), .558(2 차), .537(3 차)로 나타났다.

표 1. 한국아동패널 양육지식 질문지

양육지식 질문지
1. 아이들은 말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줘도 얼마 동안은 종종 틀린 말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2. 아기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단어들만 이해한다.
3. 아이가 낯선 상황에서 수줍어하거나 칭얼댄다면 이는 대개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4.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은 그 아이의 지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5. 아기가 아주 어린 경우,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방식은 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6. 동생이 태어나면 아이들은 밤에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빨기도 한다.
7. 대부분의 미숙아들은 결국에는 학대받거나 방치되거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지체된다. (미숙아는 체중이 2.5kg 이 못 된 채 태어난 아기와 임신 37 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를 통칭해서 말함)
8. 건강한 아기라 하더라도 새로운 음식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대개 그 음식을 뱉어내기도 한다.
9. 아기의 성격 또는 기질은 생후 6 개월이면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잘 변하지 않는다.

-
10. 부모가 아기에게 생후 첫 몇 개월 동안 반응하는 방식은 이후 아기가 행복하고 잘 적응된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우울하고 부적응적인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다.
 11. 아이들의 모든 언어는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함으로써 습득된다.
 12. 소음이 심하거나 볼거리가 너무 많으면 아기는 자기 주변 상황에 집중하지 못한다.
 13. 정상적인 아이 중에서도 몇몇 아이들은 안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Abidin,1990)을 기초로 김기현,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하위 요인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발췌하여 2007 년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확정하였으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등을 묻는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문항은 <표 2 >와 같다. 양육스트레스는 5 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 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 점까지이며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신뢰도 값은 Cronbach α =.838(1 차), .853(2 차), .860(3 차)로 나타났다.

표 2. 한국아동패널 양육스트레스 질문지

양육스트레스 질문지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
-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 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

다.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Bornstein 등(1996)이 개발한 양육스타일(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을 사용하였는데 PSQ 는 ‘사회적 양육유형(social interaction)’, ‘가르치는 양육유형(didactic/material stimulation)’, ‘한계설정 양육유형(limit-sett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PSQ 의 3 개요인 중 어머니의 온정성과 반응성을 포함하는 ‘사회적 양육유형’만을 발췌하여 측정 도구를 만들었으며 이중, 1 ~ 2 차년도에는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등을 묻는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3~4 차년도에는 3 문항이 추가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2,3 차년도 모두 동일하게 6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문항은 <표 3>와 같다.

양육행동은 5 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 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 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신뢰도 값은 Cronbach α =.815 (1 차), .831 (2 차), .854 (3 차)로 나타났다.

표 3. 한국아동패널 양육행동 질문지

양육행동 질문지
1.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2. 나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3.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준다.
4.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5.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6. 나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가. 예비조사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을 설정하기 위해 2020 년 3 월 예비조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녀양육에 있어 주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는 어머니 30 인을 통해 예비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나 단란적이 있는 0~3 세 영유아 어머니 24 인 및 0~3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육교사 6 인에게 설문지를 발송하고 응답지를 회수하였다.

예비조사는 한국아동패널의 도구프로파일 중 부모양육특성에 해당하는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양육신념, 아버지의 양육참여, 자녀의 미래기대 등 총 6 가지 도구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예비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예비조사 질문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을 설정하기 위해 양육행동 6 개 문항, 양육스트레스 10 개 문항, 양육지식 13 개 문항, 양육신념 2 개 문항, 아버지의 양육참여 4 개 문항, 자녀의 미래기대 6 개 문항을 비롯해 총 51 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된 질문지를 SPSS26.0 으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변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를 주요 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명목척도로 점수화 할 수 없는 양육신념과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자녀의 미래가치는 제외시켰다.

나. 본조사

본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를 결정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연구자료를 이용하기로 연구대상을 결정하였다.

혼합연구방법 중 양적연구에서는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변인 간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그림 3 >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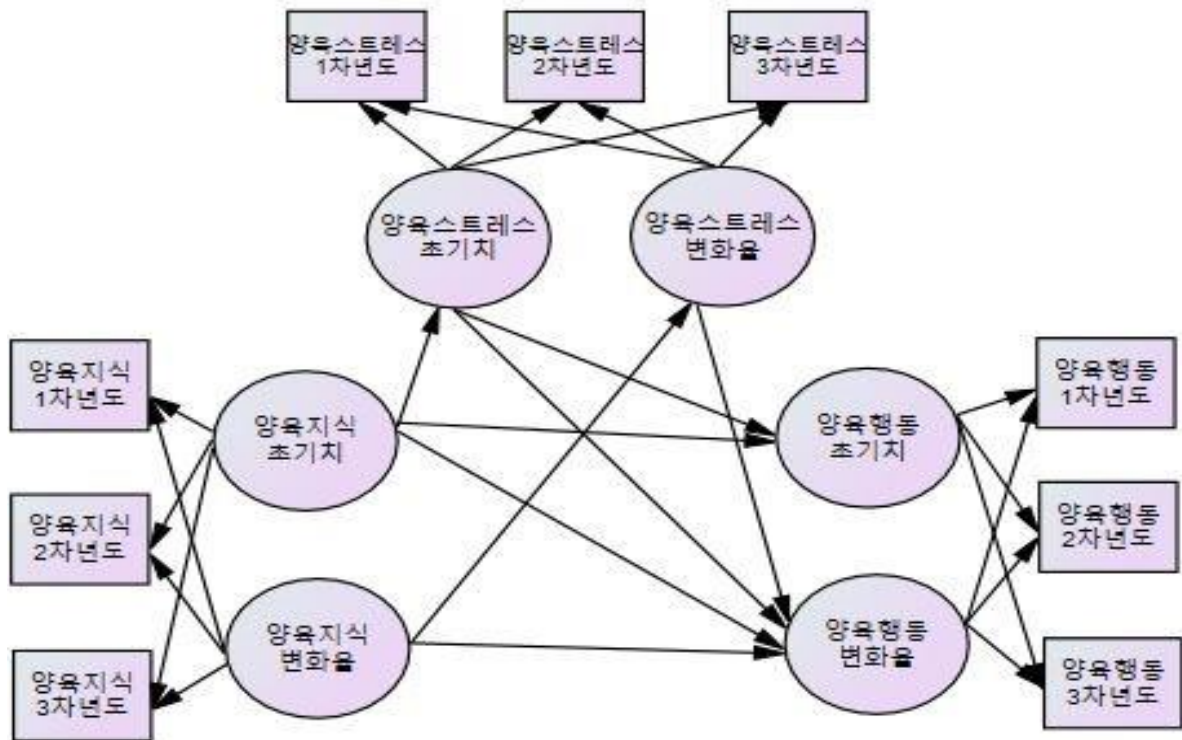


그림 3. 본 연구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연구모형에서는 우선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발달궤적을 확인해 보고,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발달궤적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26.0 으로 각 시점별 변인의 수준과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기술 통계량을 각 시점별로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함수 추정을 위해 Amos26.0 을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3 개의 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 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을 경쟁모형으로 하였으며, 모형의 간명성과 설명력을 고려하는 객관적 기준으로는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셋째, 변인별 변화모형 검정을 통해 얻어진 각 변인의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성에 대해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간명도를 고려하는 TLI, CFI, RMSEA 등의 지수를 활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평가는 TLI 와 CFI 가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우수한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하이면 보통수준을 의미한다(이학식, 임지훈, 2008).

3. 질적연구방법

본 연구는 개인 심층면담을 통해 실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경험적 의미를 주제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로부터 생성된 의미를 풍부한 세부정보로 설명하기 위해 “데이터 내에서 패턴(주제)을 식별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방법”으로 설명되는 Braun 과 Clarke(2006)의 주제 분석 방법(Thematic analysis)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특성

본 연구는 먼저 양적연구로 0~3세 영유아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이 종단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0~3 세 영유아 어머니는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해 실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알아보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풍부한 해석과 논의를 위해 0~3 세 영유아 어머니 8 명을 목적적 표본 추출(purposeful sampling)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양적 자료는 개인마다 표집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동등하게 부여되는 무작위 표집을 적용하지만, 질적 자료 수집에서는 어떠한 주제 또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을 선택하기 위해 목적표집을 사용할 수 있다(Creswell, 2003)

본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를 면담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첫째, 순차적 설명 혼합 방법(explanatory sequential mixed method)에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대상자의 동일성을 위해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 참여했던 참여자 중 심층면담이 가능한 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다.

둘째, 예비조사 참여자 중 자녀가 0~3 세 영유아에 해당하며 주된 양육을 맡고 있는 어머니를 추천 받거나 스스로 지원받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셋째, 연구 참여자와는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가 추가 되므로 참여자의 학력, 자녀의 성별, 자녀의 수 등은 상관없으며, 최소 1 회 이상 일대일 면담이 가능한 자로 한다.

연구자는 양적연구 결과에 따라 0~3 세 영유아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해 알아보는 질적연구를 위해 참여자 설정 기준을 양적연구대상과 같은 0~3 세 영유아 자녀의 어머니로 정하였다.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에서는 적절성과 충분성이 중요하므로, 예비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에서 0~3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8명을 추천 받거나 스스로 지원받아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은 1~2 회에 걸쳐 면담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1 시간~2 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 장소는 가능한 독립적인 공간이나 심층면담이 편리한 장소에서 이루어 졌다.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연구의 목표는 순차적 설명 혼합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양적연구 결과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질적연구 단계를 도입하는 것이고 양적연구 결과에 대한 정교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추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심층면담에 응한 0~3 세 영유아 어머니들은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것에 서면동의해 주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보호를 위해 심층면담의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설명하였고 이를 지킬 것에 대해 <부록 1>과 같이 연구참여동의서에 기술하여 약속하였다. 참여자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면담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구분	어머니 연령	자녀 나이 1 (성별)	자녀 나이 2 (성별)	자녀 나이 3 (성별)	예비조사 양육지식 점수 (0-13 점)	예비조사 양육스트레스 점수 (10-50 점)	예비조사 양육행동 점수 (6-30 점)	현재 맞벌이 여부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특성
참여자 1	37	만 8 세 (남)	만 3 세 (남)		11	31	20	○	둘째와 기질차이로 양육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음
참여자 2	39	만 4 세 (남)	만 0 세 (남)		12	29	20	X	보육교사 경험이 있고 본인의 아동기 양육경험이 양육에 미칠까 걱정을 함
참여자 3	40	만 4 세 (여)	만 2 세 (여)		8	37	13	○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성격과 체력저하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
참여자 4	38	만 3 세 (여)	만 1 세 (남)		10	28	16	○	첫째 양육 경험이 둘째 양육에 도움이 되어 현재 편안하게 양육하고 있음
참여자 5	42	만 11 세 (남)	만 7 세 (남)	만 3 세 (남)	10	27	19	○	또래를 키우는 친정언니의 양육행동을 자주 공유하고 도움을 받고 있음
참여자 6	45	만 0 세 (여)			11	10	25	X	늦은 나이에 출산하여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고 양육에 긍정적
참여자 7	31	만 3 세 (남)	만 1 세 (남)		10	32	22	X	남편의 늦은 귀가로 형제에 대한 육아 스트레스가 있는 편임
참여자 8	35	만 3 세 (남)			10	21	26	X	보육교사 경험이 있고 양육에 관심이 많고 스스로 예민하다고 생각함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후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은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 간 진행되었으며, 면담날짜 및 시간,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여 커피숍이나 연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실 등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였다. 면담시간은 60~120분 정도 소요되었고 면담 후 분석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면담 또는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실시하였으며, 면담 시 연구자는 면담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의의와 목적, 과정에 대한 설명과 연구 목적 외에는 면담 내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보호를 약속하였다. 면담을 하기에 앞서 본조사를 위해 예비조사 질문지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가족사항, 맞벌이 여부 등의 배경 관련 내용, 부모양육특성에 해당하는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양육신념, 아버지의 양육참여, 자녀의 미래기대 등 총 6가지 도구프로파일을 이용한 문항을 질문지로 만들어 배부하고 수거하여 본 연구의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면담기초자료를 위해 사용하였던 자료를 미리 사전에 준비하였다.

면담 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친밀감 형성을 위하여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일상적인 대화를 먼저 시작하였고, 면담은 사전에 구조화된 질문지로 된 예비조사 질문지를 배부하여 참여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 구조화된 질문은 최소화하고 주로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였으며 면담 중 핵심 단어나 중요한 사항을 메모하였다. 면담이 진행되면서 면담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였으며, 질문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일지라도 충분히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심층면담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명의 참여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면담 질문지의 내용은 양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반구조화된 문항을 만들었다. 연구자가 만든 면담 질문지는 전문가 2명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으며, 면담 질문지의 내용은 <부록 2>에 수록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경험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를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 심층면담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Braun 과 Clarke(2006)의 주제 분석 방법(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Braun 과 Clarke(2006)가 제안한 주제 분석 방법 6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단계는 자신의 자료에 친숙해지기(familiarizing yourself with your data) 단계로 녹음된 면담 자료를 기록하여 전사하고, 집중적으로 자료의 '반복된 읽기'를 통해 자료에 몰두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읽거나 의미, 패턴 등을 검색한다.

2 단계는 초기 코드 생성하기(generating initial codes) 단계로 자료를 읽고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고 흥미로운 자료에 대한 아이디어의 초기 목록을 생성할 때 시작되며, 이 단계는 자료에서의 초기 코드 생성을 포함한다. 가능한 한 많은 잠재적인 자료를 찾아내고, 포괄적으로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각 자료에서 여러 개의 코드가 부여되기도 한다.

3 단계는 주제 검색하기(searching for themes) 단계로 모든 자료를 코드화하고 코드가 아닌 주제들을 더 넓은 차원에서 분석을 재집중시키는 이 단계에서는 본질적으로 코드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코드를 결합하여 중요한 주제를 구성(form an overarching theme)에 어떻게 결합할지 고려하는 단계이다.

4 단계는 주제 검토하기(reviewing themes) 단계로 코드화 된 주제에 대한 레벨(Level)을 검토하고 코드화 된 자료를 추출된 자료가 일관된 패턴을 형성하게 되고 자료를 코딩하고 주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주제들이 유사성과 정확성을 가지게 되면 주제 지도(Thematic map)를 생성하게 된다.

5 단계는 주제 정의 및 명명하기(defining and naming themes) 단계로 제시할 주제를 정의하고 세분화하고 분석하고 이름을 붙이는 단계이며, 각 주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주제를 범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6 단계는 보고서 작성하기(producing the report) 단계로 완성된 주제로 보고서의 최종 분석 및 작성을 포함하며 복잡하지 않고 본질을 포함한 생생한 체험 경험을 통해 독자를 설득시키는 과정이다.

주제 분석을 위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심층면담은 2020 년 8 월~9 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심층면담의 자료 분석은 2020 년 9~11 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최근 질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CAQDAS: computer-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질적연구에 사용된 대용량의 자료를 저장하고 검색하며 자료의 코딩과 분류를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은 질적연구에서 사용된 컴퓨터 분석프로그램 중 NVivo12 소프트웨어 <그림 4>를 사용하였으며 NVivo12 는 QRS International 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질적 자료를 만들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을 도와주며, 그 결과를 시각화하여 지도(map) 또는 도표로 산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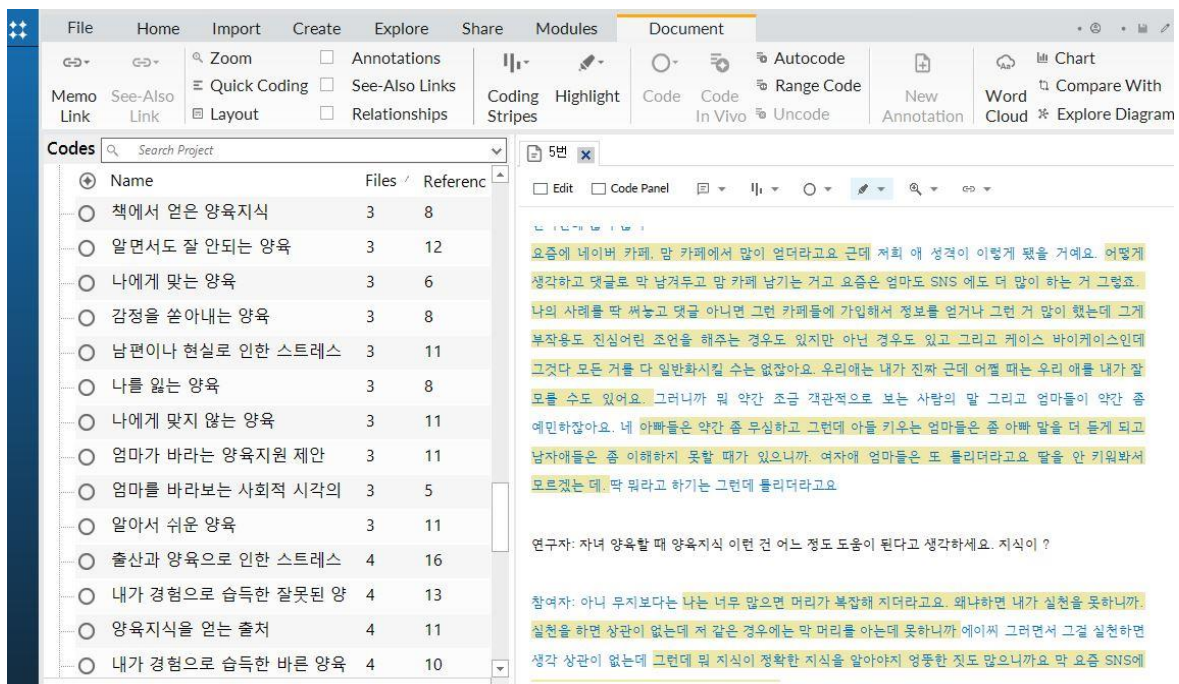


그림 4. NVivo1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4) 연구평가

가. 연구자의 준비

질적연구의 과정에 있어 연구자 자신은 가장 중요한 분석 도구가 되며(Padgett, 1988),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문헌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질적연구의 연구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선입견, 가치, 신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양적연구를 우선한 순차적 설명 혼합설계는 양적연구를 통해 연구자 나름의 선험적 가설과 이해를 가지고 질적연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견이 더 개입될 수 있다(김미숙, 2006). 그러므로 가능한 한 연구참여자의 시각으로 연구과제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연구자의 배경이나 경력은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연구자의 면담기술, 사고능력 등은 자료 수집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질적연구자의 준비는 질적연구 역량의 준비, 연구 방법론에 대한 준비, 그리고 연구주제에 대한 직관과 통찰 및 지식에 관한 준비 등으로 구성된다(노영혜, 2019).

이러한 연구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먼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현재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약 10 년의 보육관련경력(보육교사, 보육교사 겸직 원장, 원장)이 있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이자 주 양육자이다.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때부터 부모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부모역할훈련(P.E.T)의 일반과정을 현재까지 두 번 이수했으며, 아동심리상담사 1 급, 부모교육심리사 1 급, 부모교육상담사 1 급, 가족상담사 1 급, 아동미술 심리상담사 1 급 등의 자격을 갖췄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 교사교육 등 실시하고 있다.

연구자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방법론 과목을 두 차례 수강하여 질적연구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해 질적 자료연구에 관한 다양한 문헌과 서적, 동영상 강의 등을 탐독하여 연구자의 민감성과 자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연구의 윤리적 고려

질적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들은 정보 제공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연구의 목적 공개, 사례 연구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공유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연구자가 개인적 경험들을 공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등이다(Creswell, 2017). 심층면담 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면담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과 사용 등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 문서화된 연구참여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연구참여자 동의서는 <부록 3>와 같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 참여자가 대답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공지하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면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어 연구가 종료되면 자료를 소각할 것을 약속하였고, 심층면담 연구참여자에게 3만원 상당의 케익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다.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Guba 와 Lincoln(1981)이 제시한 기준인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 4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첫째, 사실적 가치는 양적연구에서 내적 타당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연구에 기술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서술과 해석을 얼마나 사실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적 가치의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참여자의 진술 그대로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자와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진실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료 분석으로 도출한 결과에 대해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Member check)를 거쳐 사실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면담과정을 녹음하여 참여자들이 말한 그대로를 수집하여 전사, 분석하였으며 도출한 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료 수집과 해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적합성은 양적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다른 맥락에서도 적합한지를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읽고 자신의 경험한 바에 비추었을 때 의미 있고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상황적 맥락 등을 포함하여 풍부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자 선정 시 다양한 특성과 배경을 가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풍부한 자료 수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연구 참여자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연구 결과물을 보여주고 연구결과가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적용가능한 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 맞벌이 가정의 참여자, 1 명~3 명 등의 다양한 자녀 수를 가진 참여자, 출산을 20~40 대에 경험한 참여자 등 다양한 특성과 배경을 가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고 연구 결과물을 연구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어머니 3 인에게 연구결과물을 보여주고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적용가능한 지에 대해 확인과정을 거쳤다.

셋째, 일관성은 양적연구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의 일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준이며, 반복된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방법, 자료수집, 분석 과정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한 추적 기록(audit trail)을 남길 수 있고 또한,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질적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연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일관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방법, 자료수집, 분석과정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기록지를 남겨놓았으며,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과정 단계마다 질적연구자인 교수 1 인과 지도 교수 1 인에게 연구 과정 전반과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감수를 받았다.

넷째, 중립성은 양적연구의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에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연구자가 특정 시간을 증명하고자 하거나 사전에 제시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중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연구에 앞서 연구문제, 연구대상자와 관련된 시각과 편견을 의식하면서 이를 통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를 수행하기전 부모교육심리사 1 급, 부모교육상담사 1 급, 가족상담사 1 급, 부모역할훈련과정(P.E.T) 등의 과정을 이수하면서 연구자가 겪었던 어머니라는 역할에서 느꼈던 감정에 치우치거나 편견을 의식하며 최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중립을 유지하였고 연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경력 5-10년 정도의 동료 교사들, 대학원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다.

IV. 결과

1. 양적연구결과

1) 예비조사

가.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본조사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 설정을 위해 주양육자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 30명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변인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와 같이 살펴보고, 변인 들 간 상관관계를 <표 6>과 같이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예비조사 0~3세 영유아 어머니 30명의 양육지식은 총 1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가능한 점수범위는 0~1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지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평균값은 10.467, 표준편차는 1.456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 0~3세 영유아 어머니 30명의 양육스트레스는 총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가능한 점수범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평균값은 25.967, 표준편차는 6.327로 나타났다. 예비조사 0~3세 영유아 어머니 30명의 양육행동은 총 6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가능한 점수범위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행동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평균값은 21.133, 표준편차는 4.133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 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p < .05$)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예비조사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0.467	1.456	25.967	6.327	21.133	4.133

표 6. 예비조사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 상관관계

변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양육지식	1		
양육스트레스	-.432*	1	
양육행동	.528**	-.757**	1

** $p < .01$ * $p < .05$

2) 본조사

가.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기술통계

본조사는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변인 간 종단적 분석을 위해 한국아동패널 1 차년도(2008) ~ 3 차년도(2010)에 응답한 최종분석 연구대상자 1537 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시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기술통계량을 <표 7>과 같이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총 13 개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가능한 점수범위는 0~13 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지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분석결과 1 차년도 평균값은 8.797, 표준편차는 2.061 로, 2차년도 평균값은 9.064, 표준편차는 2.141 로, 3차년도 평균값은 9.247, 표준편차는 2.166 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총 10 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5 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10~5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분석결과 1차년도 평균값은 27.492, 표준편차는 6.170 으로, 2 차년도 평균값은 27.409, 표준편차는 6.407 로, 3 차년도 평균값은 28.040, 표준편차는 6.385 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1 차년도에 비해 2 차년도는 약간 하락했으며, 3 차년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총 6 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5 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가능한 점수범위는 6~30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행동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1 차년도 평균값은 24.183, 표준편차는 3.002 로, 2 차년도 평균값은 23.345, 표준편차는 2.968 로, 3 차년도 평균값은 22.979, 표준편차는 3.148 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가 정규분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값을 살펴보면 절댓값이 왜도 -.904 ~ .120, 첨도 .136 ~ 1.182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왜도 < 2, 첨도 < 4'의 기준(Hong et al, 2003)을 충족하여 모든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시점 별 평균, 표준편차 및 기술통계량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양육지식 1 차년도	8.797	2.061	-.579	.324
양육지식 2 차년도	9.064	2.141	-.879	.923

양육지식 3 차년도	9.247	2.166	-.904	1.055
양육스트레스 1 차년도	27.492	6.170	.120	.136
양육스트레스 2 차년도	27.409	6.407	.092	.146
양육스트레스 3 차년도	28.040	6.385	.075	.321
양육행동 1 차년도	24.183	3.002	-.486	1.027
양육행동 2 차년도	23.345	2.968	-.168	.401
양육행동 3 차년도	22.979	3.148	-.332	1.182

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 상관관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연구모형에 투입할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각 시점별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8 >과 같다. 분석결과 각 시점에서 측정된 모든 변인 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p < .05$)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와 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양육행동과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은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이 부(-)의 상관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8.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 상관관계

변수	양육지식 1 차년도	양육지식 2 차년도	양육지식 3 차년도	양육 스트레스 1 차년도	양육 스트레스 2 차년도	양육 스트레스 3 차년도	양육행동 1 차년도	양육행동 2 차년도	양육행동 3 차년도
양육지식 1 차년도	1								
양육지식 2 차년도	.487**	1							
양육지식 3 차년도	.462**	.520**	1						
양육스트레스 1 차년도	-.072**	-.052*	-.057*	1					
양육스트레스 2 차년도	-.127**	-.059*	-.097**	.632**	1				

양육스트레스 3차년도	-.132**	-.083**	-.053*	.551**	.634**	1		
양육행동 1차년도	.084**	.062*	.092**	-.400**	-.334**	-.267**	1	
양육행동 2차년도	.101**	.088**	.096**	-.384**	-.480**	-.371**	.499**	1
양육행동 3차년도	.099**	.096**	.089**	-.312**	-.373**	-.450**	.441**	.553**

** $p < .01$ * $p < .05$

다.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종단분석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시점이 세 개 이므로, 무 변화모형 <그림 5>와 선형모형 <그림 6>을 경쟁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선형모형은 세 시점에서의 변화가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무 변화모형은 변화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거나 변화의 정도가 유의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적합하다(Duncan & Duncan,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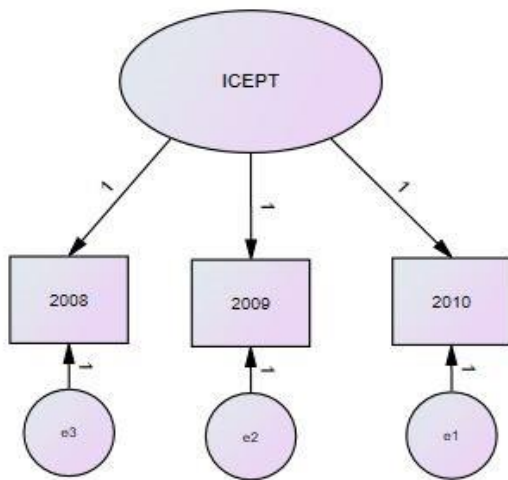


그림 5. 무 변화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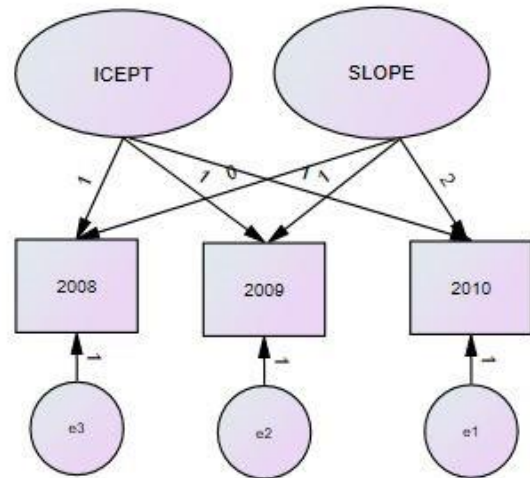


그림 6. 선형모형

각 변인들의 궤적을 최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한 무 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 분석결과, <표 9>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무 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의 적합도가 비슷했으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은 선형 변화모형의 적합도가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어, 최종 분석 모형으로 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표 9.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무 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의 적합도

변수	모형	$\chi^2(df)$	<i>TLI</i>	<i>CFI</i>	<i>RMSEA</i>
양육지식	무 변화모형	68.736***(4)	.952	.937	.103
	선형 변화모형	.913(1)	1.000	1.000	.000
양육스트레스	무 변화모형	25.244***(4)	.990	.987	.059
	선형 변화모형	9.038**(1)	.986	.995	.072
양육행동	무 변화모형	218.810***(4)	.851	.802	.187
	선형 변화모형	14.273***(1)	.963	.988	.093

* $p < .05$, ** $p < .01$, *** $p < .001$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발달궤적 추정치는 <표 10 >과 같다. 구체적으로 <표 10 >에서와 같이 양육지식 초기치 평균은 8.809($p < .001$)로 유의하였으며, 변화율 평균 또한 .225($p < .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225 씩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양육지식의 초기치 변량은 .051($p < .001$), 변화율 변량은 .028($p < .001$)로 둘 다 유의하게 나타나, 양육지식 수준에서 개인차가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양육지식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공분산은 -.084 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즉, 전반적인 어머니 양육지식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증가하게 되지만, 1 차년도 양육지식 평균이 높은 집단일수록 2 차년도와 3 차년도 양육지식 증가율이 느리게 증가하고, 1 차년도 양육지식 평균이 낮은 집단일수록 2 차년도와 3 차년도에 양육지식 증가율이 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 평균은 27.389($p < .001$)로 유의하였으며, 변화율 평균 또한 .275($p < .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275 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 변량은 .156($p < .001$), 변화율 변량은 .076($p < .001$)로 둘 다 유의하게 나타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개인차가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공분산은 -3.162($p <$

.001)로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1 차년도에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낮은 집단에 비해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긍정적 양육행동의 초기치 평균은 24.102($p < .001$)로 유의하였으며, 변화율 평균 또한 $-.597(p < .001)$ 로 유의하게 나타나,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597 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의 초기치 변량은 $.073(p < .001)$, 변화율 변량은 $.041(p < .001)$ 로 둘 다 유의하게 나타나, 양육행동 수준이 개인차가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양육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공분산은 $-.260$ 으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즉, 어머니 긍정적 양육행동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낮아지게 되지만, 초기값과 변화 정도 간의 부적인 상관으로 인해 1 차년도 양육행동 평균이 높을수록 2 차년도와 3 차년도에서의 어머니 긍정적 양육행동 변화 정도가 느리게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0.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발달궤적 추정치

변수	평균(M)		변량(SE)		공분산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양육지식	8.809 ***	.225***	.051***	.028***	-.084
양육스트레스	27.389***	.275***	.156***	.076***	-3.162***
양육행동	24.102***	-.597***	.073***	.041***	-.260

* $p < .05$, ** $p < .01$, *** $p < .001$

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검증모형

변인별 분석모형 검정을 통해 얻어진 각 변인의 선형 변화모형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모형과 같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에 따른 적합도 산출결과, <표 11 >과 같이 TLI 와 CFI 모두 .9 이상으로 우수하며, RMSEA 도 .05 이하로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검증모형	χ^2	df	p	CFI	TLI	$RMSEA$
	43.986	19	.001	.994	.990	.029

<그림 3>의 연구모형을 분석모형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각 변인 간의 경로계수는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육지식 초기치는 양육스트레스 초기치($\beta=-.115$)와 양육스트레스 변화율($\beta=-.109$)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지식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즉 종단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육지식의 변화율은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문제 1-2>에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초기치는 양육스트레스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육지식 변화율은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에 대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육지식 초기치는 양육행동 초기치($\beta=.082$)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육지식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긍정적 양육행동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문제 1-3>에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초기치는 양육행동의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양육지식 초기치와 변화율은 양육행동 변화율에 대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초기치는 양육행동 초기치($\beta=-.638$)와 양육행동 변화율($\beta=-.146$)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은 양육행동 변화율($\beta=-.899$)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긍정적 양육행동은 낮아지며, 양육스트레스는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긍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시간경과에 따른 증가는 종단적으로 긍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연구문제 1-4>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양육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양육지식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역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반대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의 경우 긍정적 양육행동 수준도 낮으며,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는 긍정적 양육행동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i>B</i>	<i>S.E</i>	<i>β</i>	<i>t</i>
양육지식 초기치->양육스트레스 초기치	-.413	.125	-.115	-3.319***
양육지식 초기치->양육스트레스 변화율	-.149	.073	-.109	-2.055*
양육지식 초기치->양육행동 초기치	.118	.053	.082	2.213*
양육지식 초기치->양육행동 변화율	-.023	.037	-.047	-.630
양육지식 변화율->양육스트레스 변화율	.886	.543	.204	1.633
양육지식 변화율->양육행동 변화율	.256	.203	.164	1.262
양육스트레스 초기치->양육행동 초기치	-.254	.015	-.638	-17.140***
양육스트레스 초기치->양육행동 변화율	-.020	.010	-.146	-2.027*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양육행동 변화율	-.324	.042	-.899	-7.801***

* $p < .05$, ** $p < .01$, *** $p < .001$

2. 질적연구결과

본 연구는 양적연구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사실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Creswell(2017)의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연구 결과는 양적연구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낸 분석결과이다. 질적연구에서는 0~3 세 영유아 어머니 8 명을 대상으로 양적결과에 기반하여 질문지를 만들어 진행되었으며, 질적연구 질문에 근거하여 심층면담 자료를 Braun 과 Clarke(2006)의 주제 분석 방법(Thematic analysis)으로 분석한 결과 <표 13>과 같이 총 4 개의 주제, 10 개의 범주와 25 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13.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에 대한 경험적 의미 분석 결과

주제 4 개	범주 10 개	하위범주 25 개
양육지식 부족의 원인 살펴보기	양육지식의 다양한 경로	가족, 이웃으로부터 얻는 양육지식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부터 얻는 양육지식 육아전문서적으로부터 얻는 양육지식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민	정보는 많은데 내게 딱 맞는 정보는 없는 현실 책과 현실은 다르고 특히 내 아이에게는 맞지 않음
양육스트레스 증가의 원인 이해하기	양육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양육스트레스 말로만 ‘남녀 평등’ ‘부부공동육아’ 스트레스는 쌓이지만 선뜻 말하기 힘든 ‘아이돌보미’
	감정의 혼란 속에서 힘들	아이에게 화내는 모습에 자책하고 미안함 이것도 스트레스 저것도 스트레스 모든 게 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주는 부정적 영향	자신 없고 몰라서 느끼는 스트레스 아이에 대한 비교로 쌓이는 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부정적 요인 분석하기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	싫었던 부모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에 허탈함 내 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양육문화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	아이들의 다른 기질로 인해 힘든 양육 스트레스는 항상 아이에게서 폭발해 버림
양육행동에 대한 긍정적 요소 되짚어 보기	스스로 노력하는 어머니	다들 그렇게 키운다고 서로를 위로하는 육아동지 어머니가 스스로 쌓는 지식과 경험의 시간 스트레스를 없애는 어머니만의 방법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	아이들 스스로 자라는 힘을 믿음 아이가 주는 위로와 감동을 받음 아이들 위해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긍정적 양육행동을 위한 지름길	무엇보다 중요한 양육스트레스 줄이기 쉽고 재미있게 꼭 필요한 양육지식과 정보 얻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어 가기

주제 분석 방법으로 분석된 결과에 대한 주제 데이터 시각화는 <그림 7>과 같다. 0~3 세 영유아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은 ‘양육지식 부족의 원인 살펴보기’, ‘양육스트레스 증가의 원인 이해하기’, ‘양육에 대한 부정적 요인 분석하기’, ‘양육에 대한 긍정적 요인 되짚어 보기’란 주제로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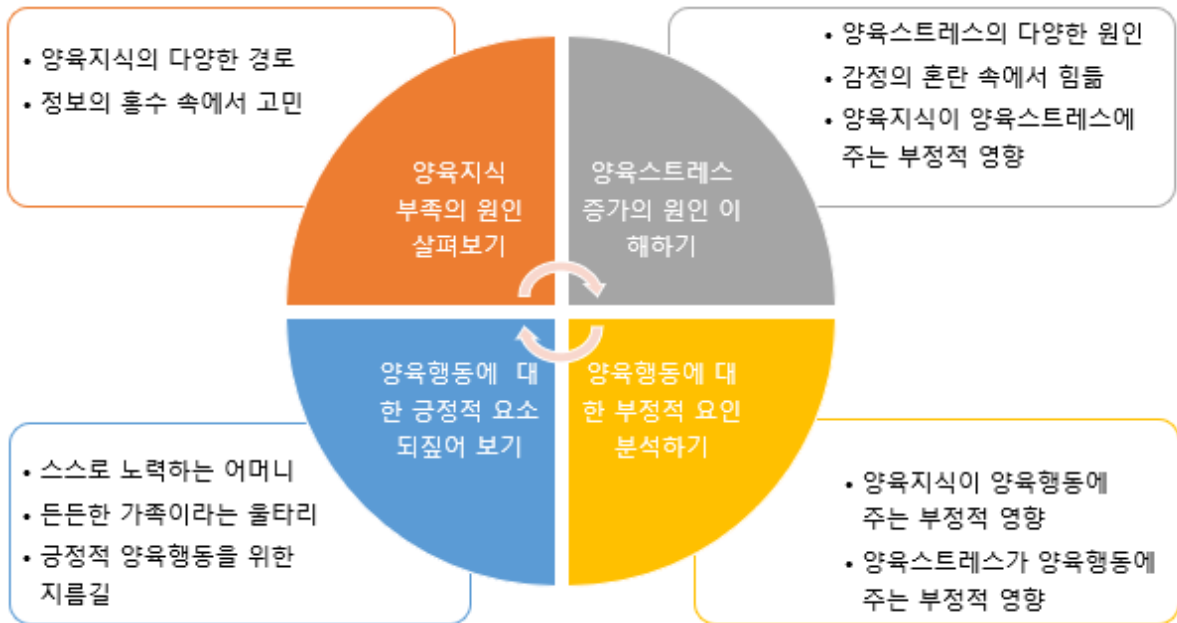


그림 7. 주제 분석 방법으로 분석된 주제 데이터 시각화

1) 양육지식 부족의 원인 살펴보기

아이의 출산과 함께 ‘부부 중심’이었던 가정 생활이 ‘아이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양육에 초점을 맞춰 생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고 이때 다양한 정보를 경험하게 되면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0~3 세 영유아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양육지식을 얻는 경로에 대해 알아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 양육지식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양육지식의 부족을 느낀 적이 있는지 본인의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이 양육지식을 얻는 경로와 참여자들이 느끼는 양육지식 부족의 원인에 대해 ‘양육지식 부족의 원인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표 14>와 같이 ‘양육지식의 다양한 경로’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민’의 두 가지 범주로 범주화하여 해석하였다.

표 14. 양육지식 부족의 원인 살펴보기

주제	범주	하위범주
양육지식 부족의 원인 살펴보기	양육지식의 다양한 경로	가족, 이웃으로부터 얻는 양육지식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부터 얻는 양육지식 육아전문서적 등으로부터 얻는 양육지식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민	정보는 많은데 내게 딱 맞는 정보는 없는 현실 책과 현실은 다르고 특히 내 아이에게는 맞지 않음

가. 양육지식의 다양한 경로

0~3 세 영유아 어머니들인 참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양육지식과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해 다양하게 보고하였는데 먼저 인적자원으로는 가족과 이웃을 손꼽아 먼저 양육을 경험한 양육경험자 또는 함께 양육을 하고 있는 육아동기들로부터 양육지식을 얻고 있었으며 물적자원으로는 다양한 매체들을 보고하였는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 온라인 임신육아카페, 육아블로그, 온라인 지역맘카페 등에서 쉽고 빠르게 양육지식을 얻기도 하고 육아전문서적을 통해 양육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었다. 또한 TV 양육관련 프로그램,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등에서 양육지식을 얻고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으며 참여자들은 한 가지의 경로가 아닌 다양한 경로에서 양육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에 ‘양육지식의 다양한 경로’는 ‘가족, 이웃으로부터 얻는 양육지식’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부터 얻는 양육지식’과 ‘육아전문서적 등으로부터 얻는 양육지식’의 세 가지 하위범주로 범주화하였다.

하위범주 가-1. 가족, 이웃으로부터 얻는 양육지식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대가족이라는 가족구성과 마을 공동체 속에서 어우러져 먼저 육아를 경험한 가족이나 친인척, 이웃을 통해 양육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도움을 받아왔다면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친할머니, 외할머니 또는 형제자매의 양육경험에만 의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전통사회의 마을 공동체의 대체로 생기는 것이 지역사회 공동체이며 오늘날의 출산 문화에서는 산후조리원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어머니들은 육아동기를 만들고 공동육아를 시작하고 정보를 함께 나누는 이웃이 되기도 한다. 참여자들 또한 부모님의 경험에서

양육지식과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양육과 맞지 않아 오히려 비슷한 또래를 키우고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지역 이웃들의 경험과 정보를 주로 참고한다고 보고하였다.

“저는 언니한테 많이 얻어요. 왜냐하면 둘째 언니네 조카가 12살 10살이라 첫째랑 비슷하기도 하고 저는 언니가 많아서 첫째 언니는 지금 조카들이 대학생 고등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어요.” (참여자 5번)

“동생들이 다 결혼을 해서 저희가 1남 3녀인데 동생들이 자식이 다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좀 많이 배우죠. 동생들한테 또 아니면 올케한테 좀 배우는 편이에요.” (참여자 6번)

“조리원 동기들도 있어서 동기모임을 갖기도 하고 동네 엄마 친구들이 생기니까 동네 또래 엄마들이랑 이야기를 자주 나누기도 하죠.” (참여자 7번)

먼저 양육을 경험하거나 비슷한 또래자녀를 양육하는 형제자매를 통해 양육지식과 정보를 얻는다고 보고한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들보다 형제자매의 수가 많았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양육을 경험한 형제자매의 경험적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가족이 아닌 다른 경로에서 양육지식을 습득한다고 보고한 참여자들은 양육을 경험한 가족이 없거나 적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고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주변 이웃, 조리원 동기, 또는 온라인 공간에서 만난 지역맘카페 회원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 된 이웃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들로부터 양육경험을 나누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하위범주 가-2.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부터 얻는 양육지식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과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영유아 어머니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검색, 육아블로그, 온라인 임신육아카페, 온라인 지역맘카페, 지역보건소, 육아종합지역센터 등 각종 관공서 사이트의 정보, 양육관련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등을 통해 양육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여자들 또한 양육지식과 정보를 얻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제일

간편한 방법으로는 궁금한 상황에 대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하는 인터넷 정보 검색과 온라인 임신육아카페, 육아블로그, 온라인 지역맘카페 등을 꼽았다.

“책 종류가 너무 많기는 많아서 찾아보기가 힘들고 주로 인터넷에서만 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걸 한 번씩 찾아보고 그러는 편이죠.” (참여자 1 번)

“급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애가 막 낮잠을 갑자기 잘 안잔다던가 하면 그냥 거의 검색을 하고 그래요. 요즘은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쪽 검색이 되니까 우리 애한테 맞겠다 싶은 걸 골라서 보면 되거든요” (참여자 2 번)

“어떻게 생각하냐고 댓글로 막 남겨 달라고 맘카페에 남기는 거나 요즘은 엄마들도 SNS 를 많이 해서 거기에 있는 거 블로그들을 보거나. 나의 사례를 딱 써 놓고 댓글 아니면 지역 엄마들 카페들에 가입해서 정보를 얻거나 그런 거 많이 해요. 내 나이가 있어도 정보는 아이들처럼 비슷한 그 나이 엄마들한테 얻어야 되더라고요.” (참여자 5 번)

“궁금한 걸 하나를 치면 여러 군데에 여러 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오면 좀 많이 읽어보는 편이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우리 딸아이는 여기에 조금 더 괜찮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렇게 많이 검색해서 보는 편이에요.” (참여자 6 번)

요즘 어머니들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정보와 지식을 나누고 만남과 교류도 하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대부분 같은 경험을 하고 사이버 공간 상의 온라인 임신육아카페, 지역맘카페에서 양육정보, 지식을 공유하거나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댓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양육지식의 습득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쉽고 빠르기 때문에 다른 경로보다 더 자주 이용하게 된다고 하였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얻은 양육지식에 대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거나 자신이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되는 것처럼 영유아 어머니들이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양육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습득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터넷 상의 정확하지 않는 양육지식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습득하게 될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점이라 할 수 있었다.

하위범주 가-3. 육아전문서적 등으로부터 얻는 양육지식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양육지식과 정보를 접하는 것처럼 육아관련 서적 또한 다양해진 것이 사실이다. 어머니들이 임신, 출산, 양육, 아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육아관련 서적들 중에서 정확한 지식이 쓰여진 육아전문서적을 구분해 내고 꼭 필요한 것을 골라서 읽는다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참여자들 중에 육아전문서적으로 양육지식을 얻는다는 보고를 한 참여자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육아전문서적보다는 시간이 적게 드는 방법을 주로 선택한다고 하였고 TV 양육관련 프로그램에서 자녀와 비슷한 문제상황을 참고하거나 부모교육 등의 강의를 듣는 방법으로 양육지식을 얻는다고 하였다.

“급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애가 막 낮잠을 갑자기 잘 안 잔다던가 하면 그냥 거의 검색을 하고 그게 아니고는 책 같은 거 오은영 박사가 쓴 책 같은 거 그런 걸 봐요. TV에서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도 자주 보는 편이에요” (참여자 2 번)

“거의 인터넷을 보거나 베스트셀러를 보거나 아니면 한 번씩 엄마들을 모아서 하는 양육전문가 와서 해주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기도 해요. 거기에 가 보면 그분이 쓴 책 같은 게 간혹 있어서 사서 보기도 하고.” (참여자 1 번)

“나도 애기가 생기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 양육관련책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부모란 이런 거구나. 실제로 키워야 하는 거니까 뱃속에 있을 때 되게 좀 많이 봤어요.” (참여자 6 번)

참여자들은 육아서적이 주는 장점도 알고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시간의 부족과 신체적 피로로 책을 읽을 여유가 없으며, 다양한 육아서적 중에서 자신의 양육상황에 맞는 육아서를 고르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오히려 출산 후가 아닌 임신과정에서 읽은 육아관련서적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참여자도 있었고 읽었던 육아서들은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참여자들 또한 육아서의 장점을 보고하였지만 양육과정 중에는 시간을 내어 육아서를 읽는 것보다

더 간편한 방법으로 양육지식을 얻고 있었다. 요즘은 여러 업체에서 제공하는 양육관련 강의들과 여러 전문기관에서 제공되는 부모교육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TV 양육관련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한 양육상황별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어머니 스스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민

0~3 세 영유아 어머니들인 참여자들은 양육관련 서적, TV 양육관련 프로그램, 온라인 맘카페, 육아블로그 등 수많은 양육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 다양한 양육지식에 대한 정보로 선택을 하기 힘들고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지식을 적용시키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양육정보를 얻지만 넘쳐나는 양육정보 속에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정보를 찾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인터넷 검색의 경우 아이의 상황을 검색하면 수십 개씩 나열되는 양육정보 중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정보를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봐야 하고 육아전문서적의 경우에도 우리 아이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책 한권을 다 읽기는 부담스럽다고 표현을 하였고 이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민’으로 해석하여 ‘정보는 많은데 내게 딱 맞는 정보는 없는 현실’과 ‘책과 현실은 다르고 특히 내 아이에게는 맞지 않음’의 두 가지 하위범주로 범주화하였다.

하위범주 나-1. 정보는 많은데 내게 딱 맞는 정보는 없는 현실

참여자들은 첫 자녀의 경우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아이의 행동변화가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가족이나 주변이웃에게 물어봄으로써 먼저 경험한 가까운 가족이나 내 아이를 잘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이나 온라인 임신육아카페에서 공개질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빠르게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하거나 너무 다른 정보를 얻게 돼 그 중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가끔 부모님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지금이랑 좀 다른 게 애들이 열이 날 때 부모님은 ‘우리 때는 열이 너무 많이 나면 좌약을 넣었어’ 하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이 사용했던 방식은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7번)

“혼자 책도 여러 가지로 많이 보고 터울이 많이 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많이 봤는데 솔직히 책으로 봤을 때랑 제가 제 아이들에게 하는 건 너무 차이가 커서 그거에서 힘들어서 혼자 책만 보고 하기에는 책 종류가 너무 많기도 많고” (참여자 1번)

“많은 지식들만으로는 우리 아이한테는 그냥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시도했다가 안 맞으면 안하기도 하고 조금 맞는다 싶으면 조금 더 해보기도 하는데 맞는 걸 찾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 4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양육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였다는 것은 양육정보가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첫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양육지식에 대한 선택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꼈다는 것은 현대 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첫 자녀의 경우 다양한 경로에서 얻어진 정보나 지식에 의존해 보고 얻은 정보를 사용하는데 있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둘째 자녀 이상의 양육시에는 경험으로 인한 지식의 획득으로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보다 어머니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표현하였다.

반면, 참여자들 중 결혼 전 보육교사의 경험이 있는 두 명의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양육정보를 찾아보거나 육아서를 참고하고 있지만 양육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3~4살 어린이집을 다니기 전까지 사람들도 너처럼 애를 행복하게 키우는 사람은 처음 봤다 할 정도로 계속 막 그래서 저도 진짜 그랬어요.” (참여자 2번)

“저는 영아기 때는 오히려 제가 뭐 백 프로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이를 키웠거든요.”

친정어머니도 멀리 사시고 시부모님도 다 가까이 살고 계시지 못하시니까.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런 건 없었어요. 크게 힘들다 이렇게 느낀 적이.” (참여자 8 번)

위 사례 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육교사로서의 경험은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참여자들의 양육지식을 축적시켰고 이러한 양육지식은 그들에게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사용하게 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주었다. 이것은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현대 사회에 어머니들은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 기능의 약화 등으로 양육지식이 부족하여 양육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높은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기 힘들며 정확한 양육지식을 선별해내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자녀양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므로 양육관련 전공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자녀발달과정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양육지식은 습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하위범주 나-2. 책과 현실은 다르고 특히 내 아이에게는 맞지 않음

참여자들은 자녀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 자녀 개개별로 양육경험이 다르며 양육경험으로 인한 지식이 자녀들마다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하였다. 아동들은 기질에 따라, 성별에 따라, 태어난 순서에 따라 양육법도 각각 다른데 육아 전문 서적은 너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형제순위, 성별, 기질별, 성격별로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 실전 육아에서 아이들마다 상황마다 참고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보고하였고, 육아 전문 서적에서 보고 배운 것을 참고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얼마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노하우가 생기면 유모차에 태우고 재울 수도 있는데 막 무조건 땅바닥에 눕혀서 재워야 된다. 뭐 책에서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노하우가 쌓이면 되는데. 책이랑 현실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영아기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참여자 5 번)

“배워 두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제 아이한테는 과연 그 방법이 먹힐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저는 모든 방식의 제 아이한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아이한테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꼭 저는 아이마다 다 다르고 성격도 약간 그냥 그때그때 아이가 교과서처럼 이렇게 내 아이는 지금 울고 있는데 교과서에 이렇게 떼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아이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다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이 약간은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참여자 6 번)

“너무 현실이랑 안 맞기도 안 맞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애가 그 책처럼 이렇게 안 따라오거나 이럴 때는 금방 쉽게 포기하게 되고. 제가 끈기 있게 잘 못하고 있어요.” (참여자 3 번)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참여자들은 육아 전문 서적에서 습득한 지식을 양육기술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양육행동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양육행동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자신의 자녀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양육을 하게 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고 토로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육아서에서 습득한 지식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육아 서적에서 제시된 훈육기술과 상호작용, 양육행동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맞지 않은 상황이며 자신의 자녀에게 양육기술로 사용되기 적당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육아서적으로 습득한 지식인 전문적인 지식과 비형식적인 정보인 양육경험에서 얻어진 정보를 적절하게 재구성하는 과정과 현대 문화의 가치와 규범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양육기술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어머니들이 현대사회 구조의 문제 등으로 인해 어머니 역할에 대한 학습 기회 부족으로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낮아져서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2) 양육스트레스 증가의 원인 이해하기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육과정 중에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신체적 피로감과 가정생활 중에서 느끼는 경제적 등이 원인이 부모역할 부담에서 오는 내적 긴장이나 일상적인 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 등이 증가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0~3 세 영유아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양육지식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어떠한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들어보고 참여자들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 증가의 원인에 대해 ‘양육스트레스 증가의 원인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표 15>과 같이 ‘양육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과 '감정의 혼란 속에서 힘들' 그리고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주는 부정적 영향'의 세 가지 범주로 범주화하여 해석하였다.

표 15. 양육스트레스 증가의 원인 이해하기

주제	범주	하위범주
양육스트레스 증가의 원인 이해하기	양육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양육스트레스 말로만 '남녀 평등', '부부공동육아' 스트레스는 쌓이지만 선뜻 말하기 힘든 '아이돌보미'
	감정의 혼란 속에서 힘들	아이에게 화내는 모습에 자책하고 미안함 이것도 스트레스 저것도 스트레스 모든 게 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주는 부정적 영향	자신 없고 몰라서 느끼는 스트레스 다른 기질로 인해 힘든 아이들과 높아지는 스트레스

가. 양육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

어머니들은 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처음 해보는 어머니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 중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며 일상생활 중에서 양육으로 인한 여러 종류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성평등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현대화된 사회는 남녀평등이 사회 전반적인 문화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 변화로 아버지 양육참여의 확대로 이어졌으며 현대적 사회 보장의 시작으로 사회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예전보다 어머니들의 육아가 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머니들 또한 남녀평등 문화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양육을 도맡아야 하는 현실 자체만으로도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양육스트레스 증가의 원인 이해하기' 로 해석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양육스트레스'와 '말로만 '남녀평등', '부부공동육아' 그리고 '스트레스는 쌓이지만 선뜻 말하기 힘든 '아이돌보미'의 세 가지 하위범주로 범주화하였다.

하위범주 가-1.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어머니의 스트레스

참여자들은 현재의 상황 중에 가장 스트레스로 인식되는 것은 육아에 대해 참여를 안 하거나 시간이 없어 참여할 수 없는 남편이라고 손꼽았으며, 자녀양육관에 대해 관여를 하는 부모님, 불안정한 환경과 불안한 미래, 출산의 경험과 힘든 육아과정, 결혼, 출산, 육아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의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 남과의 비교되는 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표현하였다. 하지만 양육스트레스는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참여자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을 겪는 과정에서 급격한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0~3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 불안으로 본인의 행동 스스로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본인 스스로 타인과의 비교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불안한 현실에 대한, 그리고 본인의 감정기복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계속되는 육아로 인한 신체적 피로, 체력 저하에 의한 신체적 스트레스를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박 육아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신랑이 워낙 늦게 오니까. 아빠가 양육에 참여하지 않고 늦게 오고 그러니까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참여자 7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애가 항상 똑똑하다고 하시면서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 이러시니까 저는 그거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저는 그렇게 잘 키우고 싶지 않고 의사도 시키고 싶지 않고 그리고 싶지는 않은데 아이가 한다면 저희가 어쩔 수 없고 그건 당연한 거지만” (참여자 6번)

“애가 텅치가 작으니까 치이는 일이 너무 많고 지금은 힘도 약하니까 혹시 뭐 이렇게 키즈카페에서처럼 다른 아이와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혹시 니꺼 내꺼 하다가 얻어맞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되어서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받는 스트레스가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치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참여자 8번)

“지금 실패해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데 책에서는 너무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첫째 엄마들 같은 경우에도 또 모유 전문가들은 모유에 대해서 막 약처럼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유를 안주면 실패하는 것처럼 안 좋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거죠” (참여자 5 번)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홀로 하는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 간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자신의 자녀와 다른 아이와의 비교로 인한 정서적 불안, 출산과 양육 과정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 등 여러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참여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육아의 어려움과 신체적 고통,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이 양육스트레스로 인지되기까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변인들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미영(2019)은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형을 첫째, 신체적인 피로에 의한 질병과 휴식 부족, 수면 부족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불안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신체적인 갈등과 부족을 의미하는 신체적 부담, 둘째,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자녀의 장애에 대한 불안이나 양육자로서의 자신감 부재, 자녀 양육으로 오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나 이로 인하는 갈등 걱정 등으로 인한 정서적 부담, 셋째, 영유아 양육으로 겪는 사회 활동 욕구의 저지, 아이를 돌봄으로 오는 자신의 취미활동, 문화생활의 제약 등으로 오는 부담감인 사회적 부담, 넷째, 가정의 월수입과 관련 없이 자녀의 양육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의미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나누었는데 참여자들 또한 이와 같이 다양한 부담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범주 가-2. 말로만 ‘남녀평등’, ‘부부공동육아’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으며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결과 또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 오늘날 아버지 양육참여 지원프로그램들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고 아버지 육아 휴직제도 장려 등 부부공동육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늘어나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정내 부부공동의 가사분담과 역할분담이 실행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아졌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0~3세 자녀 양육의 특징상 모유수유, 이유식, 수면교육 등 어머니가 전적으로 맡아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 또한 참여자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주된 산업이 자동차산업으로 주야교대근무로 인한 아버지의 낮은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신랑이 늦게 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서 힘들었어요. 혼자 나이 또래가 비슷한 형제를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참여자 7번)

“저는 아빠들이 좀 육아에 대해서 참여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희 애기 아빠는

애기랑 많이 놀아주고 많이 얘기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놀아주는 일이 그렇게 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좀 쉬는 날 여유가 되는 날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도 아직은 아이의 생각은 아직은 잘 몰라요. 아이랑 교류하는 방법도 알고 육아에 참여할 줄 알고 아빠들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알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방법도 좀 배우고. 밖에 나간다고 해서 다 놀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참여자 6 번)

“지금 보면 솔직히 저희 신랑도 애들 아빠도 놔두고 어디를 갔다 오거나 하면 놀아준다고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늦게 퇴근을 해서 또 시간이 저희는 3교대니까 조금 텅이 있잖아요. 바로 저녁이 안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놀아주는 방법을 잘 모르고 그런 걸 보면 아빠 교육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4 번)

0~3세 자녀 양육에 있어 부부간에 양육에 대한 신념과 가치, 정서를 공유하고 정서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서로에게 사회적 지지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어머니의 양육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육아서적들 중 아버지의 양육참여 경험에 대한 책과 아버지의 양육이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책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와 놀이하는 방법에 관한 책까지 다양한 아버지 육아서들이 출판되고 있다. 그만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그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참여를 촉구하고 있었으며 양육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또한 양육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자녀에게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부부공동육아를 선호하고 함께 양육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양육부담을 덜어주어 아동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하위범주 가-3. 스트레스는 쌓이지만 선뜻 말하기 힘든 ‘아이돌보미’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가정에 방문하여 전문적인 돌봄 선생님이 돌봄 활동을 하는 아동 지원 서비스이며 시간제와 종일제로 선택이 가능하다. 참여자들은 아동학대 문제가 거론되었던 ‘아이돌보미’에 대한 불신과 가정으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찾아온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하였다. 낯선 사람에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부담감으로 참여자들은 아무리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점이 있다고 하였고 맞벌이 가정 등은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머니들도 있겠지만 다수의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지원서비스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런 것들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지금도 있잖아요. 아이돌보미가. 그런데 막상 못 썼거든요. 있어도 쓸 수 있어도. 솔직히 참 애매하네요. 마음은 그렇게 애를 조금 맡길 때 진짜 딱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나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약간 현실적인지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 처음 본 사람한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좀 망설여져요. 막상 마음은 백 번도 더 맡기고 싶은데 생각보다 또 뭐 사건도 계속 터지고 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는데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렇더라구요.” (참여자 2번)

“저는 그런 걸 별로 생각해 본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이랑 같이 있고 누가 와서 애들을 봐주거나 애들을 맡기거나 막 그런 거를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신랑만 일찍 오면 좋겠는데...저는 남한테는 좀 불안해서 맡기기는 그렇고. 별로 그런 걸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3번)

“돌보미 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애를 막 폭행했다 하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차라리 제가 그냥 보는게 낫지.” (참여자 5번)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되고 정부는 육아를 가정 내에서만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여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지원하고 있다.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양육지원이 늘어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지원정책들과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고 육아지원 대상인 영유아기 아동의 보육료 지원 등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의 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내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는 이러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참여자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애착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0~3세 아동의 경우 아무리 좋은 복지서비스가 있다 할지라도 애착이 형성되지 않는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생각해보면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과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임을 알 수 있었다.

나. 감정의 혼란 속에서 힘들

참여자들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참여자들 또한 모두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생활로 어머니의 삶은 바뀌어만 가고 오로지 양육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닌 남편, 생활, 환경, 미래, 비교 등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이에게서 감정이 폭발하고 아이에게 감정을 쏟아내게 되고 일상생활 속에 느끼는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스트레스로 느껴져서 풀지 못하는 스트레스들로 인해 힘든 상황을 보고 하였으며 이를 ‘감정의 혼란 속에서 힘들’으로 해석하고 ‘아이에게 화내는 모습에 자책하고 미안함’과 ‘이것도 스트레스 저것도 스트레스 모든 게 스트레스’의 두 가지 하위범주로 범주화하였다.

하위범주 나-1. 아이에게 화내는 모습에 자책하고 미안함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중의 스트레스 상황 중에서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한 뒤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자책하고 고민한다고 보고하였다. 자녀에게 화를 내고 난 뒤 화를 낸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 아이로 인한 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아이에게 화를 내었음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는데 이런 상황에 자신의 눈치를 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 자책하게 되고 미안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책하면서 자신의 모자람에 대해 생각하며 자기성찰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자꾸 잔소리하고 뭐라하고 그러니까 나는 나 대로 애들은 애들 대로 엄마 눈치 보면서 항상 계속 그렇게 지내 오는 것 같아요 항상 못 해주는 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런 거에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보다 나는 뭐가 안되지? 뭐가 부족하지? 약간 이런 거를 많이 지금 계속 남이 봤을 때 항상 약간 고런 걸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참여자 1 번)

“너무 피곤했던 날, 물을 쏟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엄마였는데 피곤함을 핑계로 한 손으로 컵을 왜 잡고 먹냐며 몇 번을 다그치고 소리치는 날 보면서 당황한듯 무서운 듯 멍하니 바라보던 아이를 보고 돌아서고서야 겨우 물 한 컵 쏟은 아이한테 뭐하는 짓인가 반성했지만 아이는 벌써 상처받은 얼굴이었어요.” (참여자 2 번)

“회초리를 들 때가 있거든요. 들고 나서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그렇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책에서도 그렇고 TV 방송에서도 그렇고 다 우리 아이의 행동은 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어디에서든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진짜 너무 당연한 거고 자책하게 되는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고 부모로서 힘들 때도 있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한데 물론 애들한테 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근데 다 모든 책도 모든 게 다 엄마 탓으로 돌리잖아요.” (참여자 3 번)

0~3 세 영유아 어머니들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과정에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어머니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까지 더해져서 양육스트레스가 더욱 증가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참여자들 또한 자녀양육으로 신체적, 정서적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 일상생활 스트레스까지 더해져서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가까이 있는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자신의 예민하고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 자책감과 미안함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하위범주 나-2. 이것도 스트레스 저것도 스트레스 모든 게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 과정에서 쌓이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며 부모역할 수행과정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훈육, 학습지도 과정 중에서 생겨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일상 생활 중에 생기는 여러가지 사건들 사이에서 다양한 이유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부모역할 수행 과정 중에서도 자녀가 밥을 안 먹는 이유로, 집에만 있게 되는 이유로, 배가 고파서, 아이가 잠을 안자는 이유 등 불특정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거나 자녀의 양육행동 중에 생기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을 보고하였다.

“밥을 하도 안 먹고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서 이제 좀 스스로 먹기는 하지만 제가 좀 많이 터치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많이 좀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안 하면 약간 혼자 스트레스 받나 봐요. 아니면 그러면서 다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번)

“차도 없었고 신랑이 출근하러 가면 아이가 하나면 충분히 어디를 데리고 혼자서도 다닐 수 있는데 둘째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고 하다 보니까 첫째 랑 저랑 많이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트레스가 쌓였고 그러면서 저는 진짜 친구들 만나러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애를 혼자서 다 보고. 그런데 제가 스트레스 받은 적도 많았고” (참여자 4 번)

“생활하는 거나 아니면 남편이랑 환경에서 막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 몸이 짜증나는데 순간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애가 그 순간 뭘 해달라고 하면 막 짜증나더라고요. 막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참여자 5 번)

“아이가 일찍 안자면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아니 왜 아직도 안자?’ 하고 짜증이 나게 되는 걸 보면 이런 게 스트레스인 것도 알고 짜증내고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면서 상식적으로 아는 거랑 아이한테 하는 행동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참여자 8 번)

위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참여자들은 다자녀 양육으로 신체적 피로, 육체적 한계 그리고 개인 생활의 제약 상황,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으로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 힘겨워하며 자녀로 인한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참여자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감,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도 가졌지만 자녀를 돌보는 동안 느끼는 신체적 피로감, 개인 생활의 부족 등으로 인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부정적인 양육경험도 함께 가졌다는 양육스트레스 사례들을 보고하였다.

다.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주는 부정적 영향

0~3세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훈육능력, 학습지도능력 등 여러가지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시기의 어머니는 역할수행과정에서 자녀와 마찰을 빚기 시작하고 그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들 또한 자녀와의 마찰의 원인을 원부모에 대한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부모-자녀 간의 잦은 갈등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해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양육에 대한 자신감 하락이 초래되고 양육죄책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이 어머니 역할과정에서 양육지식 부족과 경험부족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으며 양육에 대한 자신감 하락과 전반적인 양육수행능력에 대해 훌륭하게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자책하고 그로 인해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을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주는 부정적 영향’으로 해석하여 ‘자신 없고 몰라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다른 기질로 인해 힘든 아이들과 높아지는 스트레스’의 두 가지 하위범주로 범주화하였다.

하위범주 다-1. 자신 없고 몰라서 느끼는 스트레스

어머니들은 출산 후에 양육을 경험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경험적 지식과 외부경로에서 얻는 양육지식과 정보의 습득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성공적 확신 정도의 기대치만큼의 양육지식의 축적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양육경험에 대해 보육교사 경력, 바쁜 부모로 인해 동생 양육의 경험, 조카 출산과 양육으로 간접 양육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을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양육지식이 없는 경험자는 물론 양육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있는 참여자 또한 양육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양육기간 내내 양육에 대한 자신감 하락과 확신 부족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기다려 준다거나 아이를 일단 혼내는 것보다는 끝까지 들어줘야 하는데 일단 둘째는 잘 안 됐어요. 솔직히 많이 들어주면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못 주다 보니까 둘째가 못 기다리는 성격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그런 게 엄마들이 이제 진짜 잘 못 참거든요.”

(참여자 1번)

“제가 자꾸 부모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게 제가 자꾸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는 돌아서는 또 하고 또 뭐라하고 너무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한 것 같아서 이제

아무 일도 아닌데도 그걸 못참고 자꾸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이제 그러면 애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밖에 나와서도 나타날 것 같고 굉장히 그런 걱정이 엄마가 한 행동이 아이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참여자 3번)

“아이가 아이한테 만약에 성격에서 걱정되는 거나 행동에 문제되는 거나 그런 게 나오면 그때 내가 그래서 그랬지 약간 자책감 아닌 자책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다 감정에서 왔던 것들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 내가 너무 내가 반응을 너무 감정적으로 했고 막 내가 너무 아이를 몰라서 아이가 그러는 게 아닌가.” (참여자 2번)

아동발달단계에서 자아의 발달과 신체적 발달로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어머니의 훈육이 시작되면서 0~3세 영유아 어머니는 끊임없이 양육지식에 대한 부족과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보육교사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교사생활로 인한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기가 시작된 자녀와 마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원부모로부터 미해결된 경험 때문으로 자책하고 부모성찰을 하였다.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신체적 피로를 느끼는 참여자 또한 자녀에게 비지지적 반응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드러남을 걱정하고 자녀의 문제행동이 자신의 비지지적 반응에서 기인한 것인지 자신의 비수용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인지 문제 원인조차 확신이 없었다. 이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들의 양육지식 부족 문제가 양육스트레스 증가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하위범주 다-2. 다른 기질로 인해 힘든 아이들과 높아지는 스트레스

부모와 자녀 간의 기질 차이는 양육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다양한 연구로 보고되고 있으며 참여자들도 자신과 기질이 다른 자녀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형제 간의 다른 기질로 둘째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마치 첫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지식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참여자 중 자녀의 높은 활동성으로 힘듦을 느낀 참여자는 활동의 제약과 생활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느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험을 하였다.

“첫째가 워낙 순하게 커서 엄마 바라는 대로 커준 것도 있지만 첫째가 워낙 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를 딱 보면서 밤중수유랑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첫째는 너무 다른 게 크다

보니까 양육을 하면서 좀 힘든 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활동적인 것도 많이 했었는데 둘째가 워낙 활동적이고 여기저기 너무 돌아다니다 보니 둘째를 낳고 나서 잘 안 하게 되고 이제는 가까운 곳도 잘 안 가게 되고 집에만 있다보니 스트레스도 쌓이고" (참여자 1 번)

"첫째가 너무 잘 따라오는 아이여서 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둘째가 때를 쓰고 짜증을 내고 막무가내로 그럴 때는 힘이 들더라고요. 둘째도 보면 제가 이렇게 달래고 어르고 달래고 하면 더 잘 따라오고 하는 건 아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걸리고 일단 바쁘고 막 정신 없고 이런 때는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막상 못하고 소리부터 지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이한테 화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참여자 3 번)

"쿠키 같은 걸 만들기를 하다가 첫째는 그래도 하는데 둘째는 하다가 금방 싫증을 내고 집어 던져 버리니까 치워야 되는 스트레스가 그런 것도 있고." (참여자 4 번)

"첫째 같은 경우에는 애기 때 진짜 너무 안 떨어지고 너무 껌딱지고 그리고 잘 때도 저를 만져야 되고 막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안 가고 잠도 무조건 저랑 자야 하고 그랬는데 저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진짜 첫째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아 진짜로 올려 보기도 하고 다 진짜 안 되는 애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참여자 7 번)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을 쌓이게 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하는데 이는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를 더욱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로 여겨지게 하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스트레스증가를 경험하게 한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나이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 자녀의 나이차가 적은 경우에는 이어지는 영아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쌓인 신체적 피로감으로 어머니는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며 이 경우 자녀의 기질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이거나 활동성이 너무 높은 아동의 경우 어머니-자녀 간의 기질차이로 인해 서로의 행동에 대해 이해부족으로 이어져 양육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부정적 양육행동도 이어질 수 있다.

3) 양육행동에 대한 부정적 요인 분석하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사회는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고 여성의 교육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는 과거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바뀌어 가고 비전통적인 다양한 가족형태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이 담당하고 있던 기능 중 많은 부분을 사회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어머니 역할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의 어머니들의 양육지식 부족의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로인한 양육스트레스 증가와 부정적 양육행동 등 양육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경험을 듣고 양육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기위해 경험적 의미를 각각 해석해 보고 이를 ‘양육행동에 대한 부정적 요인 분석하기’의 측면에서 <표 16>과 같이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 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범주화하여 해석하였다.

표 16. 양육행동에 대한 부정적 요인 분석하기

주제	범주	하위범주
양육행동에 대한 부정적 요인 분석하기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	싫었던 부모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에 허탈함 내 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양육문화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	아이에 대한 비교로 쌓이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항상 아이에게서 폭발해 버림

가.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

원부모 세대는 여성들의 높아진 학력과 경제적 참여로 인한 여성 교육향상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높아진 교육열과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변화로 세대간 갈등을 빚어왔고 그로 인한 갈등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 불안과 부정적인 양육경험을 통해 미해결된 감정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더불어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의 가족형태의 변화는 양육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부족과 자신의 자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양육문화를 가져왔으며 양육지식 부족과 부정적 양육경험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저하시켜 자녀에 대한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참여자들은 양육지식의 부족과 원부모에 대한 부정적 양육경험을 보고하였으며 자신의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고 이를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으로 해석하고 ‘싫었던 부모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에 허탈함’과 ‘내 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양육문화’의 두 가지 하위범주로 범주화하였다.

하위범주 가-1. 싫었던 부모님의 행동을 닮은 모습에 허탈함

참여자들 중 몇 명은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에서 ‘나의 부모처럼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하고 생각했던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허탈함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양육행동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부모에게 가졌던 분노와 미해결 감정들을 자신의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심리적 투사(projection)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김진숙, 김지은, 연미희, 이인수, 2017). 어린 시절에 경험한 원부모의 태도나 행동은 가족이 형성되고 자녀가 생겼을 때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이 양육행동을 결정한다고 하였다(정미경, 김영희, 2003). 현재의 자신(self)은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며 부모가 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원부모와의 경험들을 지금-여기 현재로 가지고 와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 아이에게 화가 나는 것은 아이가 잘못해서 라기보다 사실은 부모가 갖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일 때가 더 많으며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짜증내고 아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욱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미해결된 나쁜 경험이 작동하기 때문인 것이다(김진숙, 김지은, 연미희, 이인수, 2017).

“나는 엄마로서 하고 싶은, 내가 그러던 엄마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엄마랑 관계에서 생각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생각만큼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자랐던 내가 봤던 엄마처럼 되어가고 있을 때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보는 게 좀 좌절을 갖게 되는게 많은데 좌절감도 많이 느끼고 내가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를 많이 의심하고 근데 그게 또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참여자 2 번)

“부모님이 경상도 부모님들이시다 보니까 애정 표현이라든지 놀아 준다든지 말을 이렇게 좋게 하고 막 스킨십이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애들한테 무뚝뚝하고 애정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안 받아 보고 살아서 그런지

말이나 이런 거를 좀 무뚝뚝하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번)

“소리지르는 거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옛날 자기 환경이랑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게 정말 맞는게 저도 저희 친정 아빠가 소리를 지르는 게 좀 목소리고 크지만 언성을 좀 높이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받아온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고치려고 해봐도 안 되고 차라리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참여자 7 번)

원부모로부터 경험한 아동기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고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양육경험이 자녀가 생겼을 때 자녀를 향한 양육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미해결된 감정이 자신의 감정을 지배한다는 사실도 인정하였다. 또한, 원부모의 양육행동을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감을 느끼고 허탈함을 느끼며 자녀에게 미안함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서 자신의 부정적인 양육경험에 대한 치료적 방법의 개입을 생각하였으며 양육 지원에 관한 면담 질문에 대해서 과거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한 치료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본인과 같은 경험을 한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아동학대의 감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참여자 중 원부모의 양육행동 중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자신이 받은 긍정적인 경험이 자녀의 양육행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부모가 어린 시절 경험한 원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긍정적인 양육경험이 있는 부모는 살아가는 동안 심리적 안정, 긍정적 정서와 사회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양육경험이 있는 부모는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자제하고 세대간 전이를 막으려 힘쓰지만 일상생활 중 자녀와의 문제 발생시 자신도 모르게 원부모에게 가졌던 분노와 미해결 감정들로 인해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하위범주 가-2. 내 아이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회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 가치와 규범이 뿌리 깊게 존재해 왔고 가족제도는 물론 가족구성원의

역할이 중시되어 왔다. 현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가족’을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에 변화가 시작되었고 가족구조의 축소,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해체의 증가, 성역할의 변화 등 양육지식의 부족과 더불어 이기적인 가족중심문화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을 초래시켰고 이로 인해 많은 가족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 가족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이기적인 문화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양육 문화에서도 이기적인 관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성품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는데 현대에는 자신의 이익을 꾀하고 내 아이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어머니들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내가 편하려고 키즈카페에 엄마가 편하려고 오는 엄마들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즐거우려고 가는 곳이지 엄마들은 편하려고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엄마들이 꽤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저는 그래서 키즈카페는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들이 편하려고 아이들을 위험하게 놀던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주는지 마는지 그냥 내버려두는 엄마들 때문에 진짜 걱정이예요.” (참여자 8번)

“30대 엄마들은 별나’ 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셋째 또래 보내는 엄마들은 젊잖아요. 약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때와는 생각도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 하나 손해가 가면 막 부르르 떨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나이가 들어서 그 사이도 무시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내 나이 때 생각하는 거랑 그 나이 때 생각하는 거랑.” (참여자 5번)

“요즘 너무 애들한테 진짜 이렇게 올인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자랐고 그렇게 안되니까 좀 뒤쳐지는 것 같고 못해줘서 속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랑한테도 “우리는 한국에서도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민을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저는 한국을 뜨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민을 생각할 만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의 학교생활 친구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이기적인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교육도 너무 많이

위 사례에서 참여자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이기적인 육아'의 문제점에 대해 염려하였고 치열해지는 사교육에 대한 걱정과 이기적인 모성으로 키워진 아이들과 함께 하는 미래 등을 걱정하였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낮아진 요즘 자녀수도 줄어들고 늘어난 교육비 부담에 어머니들은 출산을 꺼려하기도 한다. 어머니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과한 욕심들로 이기적인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 양육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을 꾸미거나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쏟는 어머니들도 늘어나고 있다. 결혼 후에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 움직이는 미성숙한 부모도 있고 육아용품 구입의 모든 결정 상황들을 온라인 소통공간에 올려 결정에 대한 도움을 받는 어머니들도 늘고 있다.

현대사회의 가족유형의 변화는 가족기능을 약화시키고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개인에게는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여 이기적이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기능이 유지되고 회복되어야 하며 가족중심 특히 가족 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

0~3 세 영유아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지각된다고 하였고 이는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양육에 대한 부담감, 양육과정 중 자녀와의 마찰, 훈육, 학습지도 등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된다. 아동발달단계 중 영아기를 지나 걸음마기가 되면 자녀에 대한 훈육이 시작되고 이러한 과정 중에 부모-자녀 간 마찰을 겪으면서 양육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자녀에 대한 상호작용에 있어 성가심, 짜증, 화냄으로 표현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부모는 학습에 대한 지도를 시작하면서 다른 자녀와의 비교 또는 이웃자녀와의 비교를 하는 경우가 생기며 이러한 부모의 잘못된 행동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으로 해석하고 '아이에 대한 비교로 쌓이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는 항상 아이에게서 폭발해 버림'의 두 가지 하위범주로 범주화하여 해석하였다.

하위범주 나-1. 아이에 대한 비교로 쌓이는 스트레스

참여자들은 인지발달이 시작되는 0~3 세 시기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지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자녀가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다른 아이와 비교해 느린 모습에 대해 조급함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얻는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아동 학습프로그램들로 자극을 받고 있고 다양한 정보들 틈에서 효율적인 정보를 고르기보다 자녀의 부족한 모습에 조급한 감정과 걱정을 느끼며 조기교육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자녀 부진에 대한 걱정으로 본질이 왜곡됨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잘못된 양육과정은 양육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면 이는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한글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조금씩 아는 글자를 하나씩 읽는 기미를 보이고 제 이름을 쓰고 그러는데 다른 애들은 벌써 다 이름을 엄마 이름까지 쓰고 다 그렇게 하면 비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수업을 시작했고 그런다고들 해서 학습지도 무료로 받아서 한번 해봤는데 제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괜히 비교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남들한테 얻는 지식이나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놀아줬다 뭐 이런 것들이 되려 안 해주면 괜히 제가 안 좋은 엄마 같고 그렇다고 따라하려고 하니 이렇게 사정이 있잖아요. 각 집마다. 그런 게 안 맞으니까 오히려 더 제가 스트레스 더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 4 번)

“확실히 많이 해 본 아이들은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령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애들을 내가 좀 안 해줬는데 딱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를 제가 느껴요. 그런 아이들이 제 생각에 제가 그렇게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이 좀 더 밝은 거 같고 그래서 속상하죠.” (참여자 3 번)

“요즘 갑자기 저도 걱정이 되는게 첫째는 지금 뭔가 조금씩 배워야 되는 시기라서 이때 쯤이면 여러 엄마들이 또 혼란을 줘요. ‘애는 뭘 했어.’ ‘애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 이렇게요. 저도 살짝 기가 좀 짧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왜 옛날에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는 더 잘했으면 해서

어쨌든 나보다 좀 더 잘했으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 7번)

부모와 아동 둘 다 적극적이거나 부모는 소극적이지만 자녀가 적극적인 경우는 긍정적이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만 적극적인 성격의 부모가 소극적인 성격의 자녀를 대할 때 느린 행동에 대해 부모의 재촉과 채근이 계속되어 부정적 양육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또래이웃으로부터 양육지식과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자녀또래 아동과의 비교로 자녀에 대해 재촉과 채근을 하기도 하며 빠르게 접하는 조기학습에 대한 정보로 인하여 불필요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 마찰이 생겨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범주 나-2. 스트레스는 항상 아이에게서 폭발해 버림

현대 사회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에 대한 분담과 일과의 양립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양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지만 현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는 양육의 높은 가치에 비해 자신의 삶도 중요하게 여겨 양육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 절반인 4 명이 맞벌이 가정이며 맞벌이 가정에서의 육아분담은 큰 고민거리인 동시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육아는 대부분 어머니가 더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양육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고 스스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속되는 양육상황으로 자녀에게 스트레스 감정을 풀어버리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본인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상황이거나 남편으로 인하여 화가 나는 감정을 느낄 때도 눈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폭발해 버리는 감정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아빠가 양육에 참여하지 않고 늦게 오고 그러니까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로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내가 이거 하지 말랬지?” 하고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하면 안 되는 걸 해서 짜증이 난다고 생각 했었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신랑한테 화가 난 걸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고 있던 거였어요. 신랑이 너무 늦게 오고 둘을 밤에까지 혼자서만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게 되고 짜증을 내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 지쳐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삶의 존재 이유도 모르겠고 그때는 딱 컵에 물이 차 있는데 물 한 방울만 더 넣으면 넘칠 것 같았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참여자 7번)

“엄마들이 어느 순간 되면 엄마도 밤에도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남자들은 “낮에 혼자 있잖아.” 하고 이야기해요. 그건 낮이고 밤에도 혼자 있고 싶고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내 몸이 힘들고 내가 짜증나면 애한테 더 짜증내게 되고 그러죠.” (참여자 5번)

“하루종일 “엄마, 엄마”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거 할까? 엄마 우리 뭐하고 놀까? 엄마는 뭐해? 엄마 내가 불렀는데 왜 이야기 안 해?” 이러면서 하루종일 엄마를 부르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잠시 쉬려고 해도 엄마는 왜 나랑 안 놀아주고 자꾸 쉬냐고 하고 왜 아이들은 자기랑 안 놀아주면 엄마가 쉬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모든 걸 함께 하자고 하는 아이를 보면 낮까지는 괜찮다가 오후가 되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스트레스가 쌓여서 “엄마 좀 그만 불러”하고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8번)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생활 중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성가심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면서 반복되는 일상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계속되는 남편의 늦은 귀가는 소위 이야기하는 ‘독박육아’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성가시게 하면 늦게 오는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냄으로써 감정적으로 표현된다고 하였고 그 상황을 한 참여자는 ‘컵에 물이 차 있는데 물 한방울이라도 더 넣으면 넘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도 맞벌이 가정이지만 남편보다 일찍 퇴근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황을 ‘낮에 혼자 있잖아.’라고 이야기하는 남편에 대해 서운함을 표현했다. 어머니들도 혼자 있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남편은 그 상황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이른 퇴근 후 집안살림에 자녀를 돌봐야 하며 밤낮으로 아이와 붙어서 지내다 보니 아이에게 더 짜증을 내게 된다고 하였다. 0~3세 영유아 자녀는 신체적 움직임도 많고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어머니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의 스트레스들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표현된다고 참여자들은 보고하였다.

4) 양육행동에 대한 긍정적 요소 되짚어 보기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올바른 자녀성장을 위해 시기에 맞는 양육지식을 꼭 필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출산 후 몸을 추스릴 틈도 없이 계속되는 양육으로 쌓여만 가는 양육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사람은 어머니 본인일 것이다. 어머니들 스스로는 자녀의 임신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모든 생활의 초점을 자녀에게 맞추고 있을 것이며 어머니의 양육행동들이 옳고 그름으로 또는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지라도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참여자들은 양육지식의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드러내고 양육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자녀를 향한 부정적 양육행동을 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행복함과 자녀로 인한 기쁨을 이야기하며 행복감을 표현하였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인 본인의 자녀를 위해 양육지식과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여 스스로 양육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있었고 가족과 또래 이웃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서 어머니로서 양육에서의 긍정적 요소들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과 정확한 양육지식을 습득하는 기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좋은 환경까지 더해져 긍정적 양육행동을 위한 지름길까지 찾음으로써 처음 어머니가 되었던 마음으로 되돌아가자는 의미로 ‘양육행동에 대한 긍정적 요소 되짚어 보기’로 해석하여 이를 ‘스스로 노력하는 어머니’와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 그리고 ‘긍정적 양육행동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표 17 >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표 17. 양육행동에 대한 긍정적 요소 되짚어 보기

주제	범주	하위범주
양육행동에 대한 긍정적 요소	스스로 노력하는 어머니	다들 그렇게 키운다고 서로를 위로하는 육아동지 어머니가 스스로 쌓는 지식과 경험의 시간 스트레스를 없애는 어머니만의 방법

되짚어 보기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	아이들 스스로 자라는 힘을 믿음 아이가 주는 위로와 감동을 받음 아이들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긍정적 양육행동을 위한 지름길	무엇보다 중요한 양육스트레스 줄이기 쉽고 재미있게 꼭 필요한 양육지식과 정보 얻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어 가기

가. 스스로 노력하는 어머니

참여자들은 온라인 소통공간인 지역맘카페나 육아블로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래 이웃 등을 빠른 양육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로로 사용하기도 하고 양육에 대한 지지를 주고받는 소통의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소통공간을 통해 양육경험을 나누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는 소식처로 활용하며 어머니 스스로 위안을 얻고 있었으며 양육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곳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하거나 TV 양육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양육행동을 돌아봄으로써 자기성찰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양육행동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스스로 노력하는 어머니’는 ‘다들 그렇게 키운다고 서로를 위로하는 육아동지’와 ‘어머니 스스로 쌓는 지식과 경험의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를 없애는 어머니만의 방법’의 세 가지 하위범주로 범주화하였다.

하위범주 가-1. 다들 그렇게 키운다고 서로를 위로하는 육아동지

참여자들은 양육과정에서 다양한 감정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 개인이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전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감정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에 두려움을 갖고 고민하게 된다. 양육과정에서 자녀로 인한 행복함, 기쁨과 같은 행복감도 느끼지만 슬픔, 불행과 같은 우울감도 느끼게 되면서 어머니들은 같은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육아동지들과 사회적 지지를 나누며 다시 양육의 힘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 또한 같은 또래를 키우고 있는 이웃들, 형제자매, 지역에서의 육아모임 등 양육동지들과 만남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지만 그것을 계속 처음에는 이제 입장도 바꾸고 조금은

아이를 다 비슷하게 키우니까 '아 이렇게 키우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 괜찮은 거구나' 좀 지나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내 아이는 이렇구나.' 이렇게 좀 내려놓고 바꿔야 하는 행동도 있고 엄마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내려놓게 되는 거 같아요." (참여자 1번)

"엄마들 만났을 때 내 자식의 안 좋은 것에 얘기했을 때 솔직히 '그래 니 자식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엄마들은 없잖아요. 아 '일단 괜찮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도, 그것도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 애들이 다 그렇다' '우리 애도 그랬다' 그런 거, 그 말 들으려고 가는 것 같아요."

"울산맘 카페 엄마들도 단순하게 만나는 게 수다 한 번 풀고 나면 스트레스 풀리는게 얘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또래를 키우는 엄마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게 우리 아이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아이도 이렇더라 이런 거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런 모임도 잘 안 나갔었는데 최근에 그런 모임도 나가게 되는게 진짜 그런 거더라고요." (참여자 2번)

"조리원 동기들이 첫째가 5살이고 둘째가 2, 3살이에요. 일단 저희가 12월 말이 생일이니까 다음 해에 태어나 2살인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동기들이 또 위에도 다 여자아이고 밑에는 다 남자아이고요. 거기에서 양육에 관해서는 많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또래들이 있어서 위 아래로 다 똑같고 그러니까. 그쪽이랑 대부분 소통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애가 이런데 그 집도 그러느냐' 그래서 '아 우리 집도 이렇다' '둘째는 이런 데 어떠냐'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고 해요." (참여자 4번)

전통사회는 대가족제도와 마을공동체에서 양육으로 부모님과 가족, 친척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면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기능의 상실과 가족형태의 변화로 가족관계의 대체개념으로 생긴 지역에서 만나는 이웃,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이웃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어 이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새로운 대처방법으로 보인다.

현대의 영유아 어머니들이 과거 대가족사회에 살았다면 양육과정에서 가족과 마을공동체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얻고 충고와 조언을 들으면서 양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적 지식을 쌓아갔을 것이고 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에 대해서는 물질적 지지를 받으면서 심리적 불안을 애정과

관심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해소했을 것이며 자신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경험적 충고와 조언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 관점에서 보면 대가족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핵가족 중심의 현대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어머니에게 필요한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적 요소들이 감소하였지만 현대 사회의 어머니들은 현 시점에 맞는 방법으로 지역내 이웃으로부터, 온라인 소통공간의 이웃으로부터 사회적 지지와 서로에 대한 위로를 나누며 함께 양육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위범주 가-2. 어머니 스스로 노력하며 쌓는 지식과 경험의 시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일상생활 중 궁금한 점을 바로 찾아볼 수도 있고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일어나는 궁금증들도 검색을 통해 금방 해결이 가능하며 저출산 정책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또한 시행되고 있으며 TV양육관련 프로그램에서 양육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경로에서의 양육지식을 습득하며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양육지식은 필요하므로 스스로 양육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의 양육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여 양육을 하고 있었으며, 경험적 지식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저는 양육을 할 때 한 가지만 지금 생각하고 가는 거거든요. 정신이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거 그게 확고한 목표가 있으니까 저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인사 잘 하는 아이가 좋고 그렇게 키울 거라서 예의바른 아이로 키울 거라서요. 그러니까 키우는 동안에는 이런 기동이 잘 서 있으면 아이들이 바르게 가는 것처럼 엄마가 흔들리면 아이도 흔들릴 것 같아요.” (참여자 6 번)

“둘째가 무슨 말을 할 때 못 알아듣게 말을 해도 ‘아 이렇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첫째 때의 경험으로 음~그렇구나 네 마음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게 느껴지더라구요.” (참여자 7 번)

“친구엄마랑 부모교육이 있으면 가끔 들으러 다니는데 양육 강의라는 게 기존 교육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일 수도 있지만 하나라도 더 들으면 더 도움이 될까 싶어 더 배우러 가는 거예요. 아는 거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배우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런 걸 듣는건데.”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 때문에 뭘 못하고 내가 생활이 힘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왜 아이 재워놓고도 시간은 있고 육퇴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옛날이야 부모들이 잘 몰라서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아이들이 알아서 크게 놔줬지만 우리는 아이한테 딱 집중할 수 있잖아요. 배우려고 하면 배울 곳도 많고.” (참여자 8 번)

“TV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이랑 비슷한 행동을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저렇게 해서 그렇구나.’ 그 엄마 행동을 보고 제 행동이랑 비슷하고 그 엄마의 말이 제 말투랑 비슷하고 그러면 ‘나랑 비슷하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조심하려고 노력은 해요. 참고를 많이 해요. 거기 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모습이 잘 보여지니까.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니까.” (참여자 3 번)

한 참여자는 TV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의 양육행동을 보면서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며 반성하고 양육전문가가 충고해주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되돌아본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양육에 대해 확고한 목표를 세움으로써 목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더라도 둘째 자녀부터는 경험적 지식으로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의 양육에 대해 재교육을 통해 자기성찰을 하기도 하며 양육과정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어머니로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여자들은 가족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한 개인으로서 기둥을 바르게 세우고 양육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으며 어머니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3. 스트레스를 없애는 어머니만의 방법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준말로 된 신종어가 많이 생겨나는데 그 중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육퇴’로 ‘육아 퇴근’의 준말이다. 이는 아이가 잠들면 어머니가 육아에서 퇴근하는 것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참여자들도 ‘아이들이 잠잘 때 예뻐요.’, ‘육퇴를 기다리는 상황’ 등을 표현하며 자녀가 잠이 드는 순간이 어머니들의 휴식 시간이며 자유 시간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육퇴’의 시간이다. 이 순간이 하루를 마감하며 휴식과 자기 반성과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오로지 어머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자들은 ‘육퇴’라는 단어처럼 힘든 양육의 상황들을 위트있게 넘기고 있었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가며 양육의 위기를 넘기고 또다시 힘을 낼 에너지를 얻고 있었다.

“엄마만의 시간이 있으면 엄마도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는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지금까지 첫째랑 둘째한테 붙잡혀 있어 가지고 매일 하던 운동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5년만의 둘째가 어린이집을 가면서 등산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것 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애네들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웃음). 그러면 저는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참여자 4번)

“원래 결혼 전에 커피를 안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되더라구요. 결혼해서 아줌마들이 커피를 마시고 달달한 게 들어가면 기분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그 얘기가 뭔지... 저도 혼자 쉬는 날 아이들 학교랑 어린이집 보내놓고 청소 싹 해놓고 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나면 그때 기분이 좋으니까 좀 풀어지게 되고 스트레스가 딱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참여자 5번)

“저는 예전에 보육교사 했을 때 직장동료들을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대부분 지금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어서 나도 빨리 둘째 키워놓고 다시 일해야지 하는 생각도 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힘든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은 둘째 수유 때문에 술은 못하지만 가끔 만나서 술 한 잔씩 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일 했을 때 생각도 나고 좋거든요.” (참여자 2번)

참여자들은 면담 질문 중 양육스트레스가 본인의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양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을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동안 어머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집안 일을 마치고 나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예전 직장동료를 가끔 만나는 모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0~3 세 영유아 자녀들을 양육하는 힘든 시기동안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정기적인 시간이나 경제적인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녀의 성장으로 기관을 이용하게 되면서 자신만의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그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녀 성장 후 재취업을 꿈꾸며 어머니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미래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힘들음을 보고하고 있지만 자녀 출산을 후회하는 참여자는 없었다. 오히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 자녀성장과 양육경험의 축적으로 조금씩 양육이 편해짐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만의 양육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양육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

참여자들은 ‘0~3 세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면서 행복하게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라는 면담 질문에서 자녀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과 자녀로 인한 감동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한 행복함에 대해서 경험을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양육과정에서 느끼는 힘든 감정과 경험을 면담과정에서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힘든 과정만 겪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라는 자녀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자녀로 인한 일상생활 중에서 행복감을 경험하고 있었고 특히 어머니 개인적인 시간으로 양육과정에서의 힘들음을 해소하기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남편을 양육에 참여시키는 시간으로, 어머니 자신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휴식의 시간이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참여자들이 주로 주양육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양육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아버지로서의 남편의 역할에 불만족을 느꼈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양육과정에서의 힘든 점을 남편으로부터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는 ‘아이가 스스로 자라는 힘을 믿음’과 ‘아이가 주는 위로와 감동을 받음’과 ‘아이들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의 세 가지 하위범주로 나누어진다.

하위범주 나-1. 아이가 스스로 자라는 힘을 믿음

어머니들은 임신기간 내내 뱃속의 아기의 건강을 염려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던 순수한 바람이 자녀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욕심이 더해지며 다른 아이들과 비교로 이어지고, 못해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한 참여자는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로 벌써부터 욕심을 내는 시부모님의 모습 공부의 전부는 아니며 아이가 행복하다면 자신은 아이의 길을 응원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자녀가 전문적이고 남들 눈에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자녀가 스스로 자라나는 힘을 믿는다고 하였다.

“문득 집에 들어오면서 문 앞에 택배를 번쩍 들어 엄마 대신 챙기고 쿡을 까서 엄마 입에 먼저

하나 넣어주고 먹고 빨래 개는 저를 도와준다면 비뚤게 수건을 개어주고 덤다는 말에 무심코 손부채 부쳐주는 엄마 팔을 잡고는 엄마 힘든데 괜찮다고 말하는 아이를 보며 문득 '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아이를 지켜주겠다던 엄마는 엄마 감정 하나도 못 지켜 아이에게 상처 줄 때가 있는데 엄마 힘든 걸 먼저 걱정해주는 아이를 보며 감사하기도 하고, 아이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지 못한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보고 잘하는 애들 보며 나도 모르게 비교한 건 아닌가 반성도 되고 너무 잘 자라고 있던 아이에 비해 '나만 안자라고 있었구나.'란 생각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참여자 2번)

"아이가 행복한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의사를 하고 또 뭐 판사를 하는 딸을 두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항상 저를 보면서 "엄마! 엄마 나는 행복해." 이 소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항상 저를 보면서 "엄마! 엄마 나는 행복해." 이 소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거기에 아이한테 따라줄 수 있으니 아이가 스스로 잘 자라 줄 것을 믿어요." (참여자 6번)

"첫째는 워낙 안 먹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조금 찾아서 먹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약간 편식처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때는 그냥 처음부터 누나랑 똑같이 줬는데 나물이든 목이든 확실히 첫째보다 더 잘 먹는 거예요. 매운 거나 그런 것도 먹고.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첫째 때는 스트레스였다가 둘째 때는 스트레스가 아닌 게 되 버리는 경우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놔두니 스스로 잘 먹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4번)

"엄마! 나 배웠어"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엄마 일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거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더 반성을 하고 소름도 끼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애가 내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들어서 배우는구나.' " (참여자 7번)

부모들은 임신과 출산을 한 순간 자녀의 건강만을 바라며 키워가지만 점점 비교를 하고 욕심을 채우면서 자녀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다. 자녀의 진학 결과물로 부모의 능력을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자녀의 감정 결과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일방적 가족관계를 유지할 때가 많다. 아이들은 부모가 키운다고 자라는 존재가 아니라, 아

이들 스스로 자라고 있다. 때로는 부모의 욕심을 버리고 자녀가 스스로 자라는 힘을 믿어볼 필요도 있다.

참여자들은 자기부족을 느끼고 양육과정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자녀들의 자조기능에 대한 경험을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의 부족한 모습에도 자녀들은 스스로 자라고 생각을 키워가고 오히려 어머니인 자신을 위로하며 헤아려주며 커가는 모습에서 위로와 위안을 받고 있었다.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 기회 속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은 연습하며 능숙하게 다루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취해가는 아이들은 더욱 많은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과한 욕심과 개입을 조금씩 내려놓는다면 자녀의 더 큰 성장을 보게 될 것이며 자녀 스스로의 자조기능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도 어머니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하겠다.

하위범주 나-2. 아이가 주는 위로와 감동을 받음

참여자들은 양육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에 대한 질문에 '아이로 존재 자체의 행복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양육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자녀의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자녀들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위로 받고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경험을 하게 했지만 자녀들은 이를 온몸으로 반응하며 수용하며 용서하고 있었고, 더불어 어머니에게 위로의 몸짓과 손짓과 말들을 해주고 있었다.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서 소리쳐 미안하다고, 니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니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라고 다음엔 좋게 말하겠다는 말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여줘서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었는데 며칠 후 비슷한 실수를 한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는 저를 보며 "엄마가 화 안 내고 예쁘게 말해주네~ 나도 그럼 화 안 내고 예쁘게 말할 게."라고 하는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특히 내 아이는 지난 일은 쉽게 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온전히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며 '아이에게 별 생각없이 뱉는 내 말과 눈빛 모두 아이에겐 생각보다 많이 크게 느껴졌구나. 중요했구나'란 생각이 들었고 왜 어른도 아이에게 잘못했을 땐 사과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참여자 2 번)

“솔직히 아이가 저를 위로해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키우기는 하지만 재가 나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손짓 하나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도 “엄마는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났어?” 이리하면 저한테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요. 이렇게 토닥토닥 더 자라고 해주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죠.” (참여자 6 번)

“제가 첫째 때는 4 살 때까지 마사지를 하면서 재웠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둘째를 못 해주다가 둘째를 아주 가끔 해주게 되면 둘째는 “엄마, 힘들지.” 하고 자기가 저한테 마사지를 해줘요. 주물러 주고. 제가 이렇게 자기들한테 그렇게 막 챙기고 이렇게 사랑하고 행동을 했던 거를 저한테 다시 표현할 때 그럴 때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참여자 3 번)

“첫째가 제법 커서 같이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렇거든요. 신량이 없고 그렇더라도 첫째가 그걸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처럼.” (참여자 7 번)

Winnicott(1992)은 건강한 아동 발달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부합되는 ‘충분히 좋은 엄마(good enough mother)’의 개념을 기술해 어머니와 아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아 발달에 엄마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어머니들은 엄마라는 역할에서 아내라는 역할에서 또는 직장인이라는 역할에서 완벽하기를 바라지만 모든 역할을 완벽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어머니들이 바라듯 완벽한 엄마는 존재하지 않고 완벽한 엄마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자들 또한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 자책하고 좌절하였지만 자녀들은 어머니 존재만으로 위로를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자녀들에게 준 애정적 표현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언어적 표현으로 어머니를 위로하며 자녀들을 성장하고 있었으며 완벽한 어머니가 아닐지라도 어머니 존재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발달에 기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어머니 역할에 완벽하기를 바라는 인식을 바꾸고 양육죄책감을 덜 느낀다면 자녀 양육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위 범주 나-3 아이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노력함

가족은 여러가지 기능을 하고 있으며 경제 및 소비 기능, 성적 및 재생산적 기능도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자녀들 위해서는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정서적 안정 및 유대기능, 여가 및 휴식 기능, 사회보장기능 등이 중요한 기능으로 꼽을 수 있다. 현대 사회의 가족형태의 변화는 가족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핵가족화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세대의 지혜를 자녀세대로 전수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지고 양육방법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는 가족구성원의 개인생활의 개성화를 진작시켜 부부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가족 간 정서적 안정과 유대기능도 약해지고 있다. 가족의 기능 중 여가 및 휴식 기능은 가족관계 속에서 사회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줄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요즘은 가족구성원간 생활의 개인화와 사회경제활동시간의 증가로 가족공유의 시간이 감소하여 가족 간 상호작용의 부족을 초래하고 가족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가족기능 중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적 안정 및 유대기능과 여가 및 휴식 기능을 중요시하였고 가족 간의 시간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간다고 하였다.

“아이들의 표정에서 ‘진짜 좋다 좋다.’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가족끼리 와서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너무 행복해요. 가족끼리 유대감이 많이 형성되어 있구나 이런 마음도 느끼게 되고 보통 잘 때 너무 예쁘다고 하는데 잘 때는 엄마들이 반성하는 시간이고 그거보다 들어서 잘 놓고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할 때 둘을 보고 ‘둘을 낳길 잘했다. 잘 낳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여자 1번)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지만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저도 받겠지만 그럼 이거를 가족끼리 재미있는 놀이라든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신나게 땀 흘릴 정도로 논다든가 어디에 놀러 간다든가 이런 걸로 그럼 풀자 요새는 서로에게 힘이 덜 되게 그냥 너무 나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애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걸 좀 풀 수 있게끔 잊어버릴 수 있게끔 놀아 주자 어차피 나도 놀면 나도 스트레스를 풀리니까 이런 걸로 바꿔 가지고 요새는 가족끼리 좀 더 친해졌어요.”

(참여자 7번)

“아이가 웃을 때. 아이가 웃을 때 막 안길 때. 일단 안겨서 웃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캠핑에 자주 가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셋이 아무렇지도 않게 셋이 쪼르르 앉아 있을

때 행복함? 돌보다는 셋이 있어서 더 행복하고 그리고 둘이 싸웠는데 아이가 가운데서 애교를 부려주면 둘이 웃잖아요. 그러면 스텝 녹으니까 아이로 인해서. 그것만 한 게 없죠.”(참여자 6번)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생활 중에 부정적 양육 경험에 대해 보고하면서 자책하고 미안함을 느끼며 양육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자신의 부정적 양육행동의 원인이 양육지식의 부족과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함을 인지하고 참여자들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 시간을 갖거나, 가족과 여가 및 충전의 시간을 갖고,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거나 자녀에게 소홀함을 느끼게 될 때 자녀양육에 있어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간의 기능강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위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참여자들은 자녀 성장에 따른 양육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접하지만 선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자타에 의해 느껴지는 일상생활 스트레스로 부정적 양육행동을 경험하지만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 위기상황을 함께 대처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다. 긍정적 양육행동을 위한 지름길

인간에게 있어 개인적으로도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신념은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효능감이 높으면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양육에도 양육효능감은 중요한 변인으로 손꼽히는데 이는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녀와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자녀간 믿음을 증진시켜야 하고 무엇보다 양육으로 쌓은 스트레스를 어머니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양육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세와 양육에 자신감을 가지고 어머니 자신이 변화하려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양육의 과정은 항상 예측할 수 없지만 어머니 스스로가 올바르게 완벽하게 하려는 자세보다 어머니 먼저 편하고 자신감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며 양육에도 지름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겠다. 이를 ‘긍정적 양육행동을 위한 지름길’로 해석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양육스트레스 줄이기’와 ‘쉽고 재미있게 꼭 필요한 양육지식과 정보 얻기’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어 가기’의 세 가지 하위범주로 범주화하였다.

하위범주 다-1. 무엇보다 중요한 양육스트레스 줄이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위해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과 심리적 안정의 필요성과 안정적인 양육환경의 조성의 중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자들도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했던 영아기가 지나고 보육시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신체적 부담감이 덜어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힘든 시기동안 양육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것을 느끼면서 양육스트레스가 부정적 양육행동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고 양육스트레스를 풀기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었고 양육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과 양육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도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운동도 하고 저 나름대로 자격증 공부도 하고 하니까 이제서야 내가 이렇게라도 어떤 걸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 예요. 아니면 진짜 24시간 애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멍청하게 있어야 되고 그니까 애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놀아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혼자서 시간이 안 가져 지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면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나 운동이나 하니까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확실히 애들한테도 그게 되더라구요.” (참여자 4번)

“예전 어린이집에서 부모 교육을 했는데 드림치는 교육인지 그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들이 그때 되게 좋아 했었어요. 왜냐면은 엄마들끼리 놀고 이런 거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있어서 저는 둘째를 업고 왔다 갔다 했지만 부모 교육보다는 그냥 엄마들끼리 노는 그런 게 좋은 게 엄마들이 집에 갈 때 표정이 되게 밝았어요. 스트레스를 풀어서.” (참여자 5번)

“부모님들한테 느꼈던 그런 거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프로그램, 뭐 스스로 잘 회복하고 자라는 엄마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받았던 행동들을 지금 내가 우리 자녀한테 그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안 해야지 하면서도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심리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엄마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나 먹거리로 해소하는 방법, 규칙적인 운동으로 해소하는 방법, 충분한 수면으로 해소하는 방법, 자신 만의 취미생활로 해소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만의 시간을 갖거나 운동이나 취미생활, 부모로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부모성찰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 등을 꼽을 수 있다.

참여자들 중에는 원부모에게 받았던 부정적 양육경험에 대해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세대간 전이를 막기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통해 자기성찰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양육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좀더 나은 양육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부모성찰은 자녀와의 애착과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부모성찰은 양육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다른 참여자들 또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싶은 원인도 자기성찰의 일종으로 부정적 양육행동의 원인이 스트레스임을 알고 원인을 제거하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노력으로 보인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양육스트레스의 심각성으로 인한 부정적 양육행동을 인지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방향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하위범주 다-2 쉽고 재미있게 꼭 필요한 양육지식과 정보 얻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양육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은 없었으나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습득과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돕는 기관 등 바쁜 현대의 어머니들에게 최소 시간 대비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양육 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 성장에 따른 수많은 양육정보를 필요로 하였고 교육정보, 훈육 정보,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사가 달라지고 있지만 양육정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다 보니 정확한 정보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만화와 같은 읽기 편한 육아서적과 아동발달단계별 다양한 분야의 아동관련 정보가 제공이 애플리케이션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조리원에서는 하는 게 엄마는 쉬고 애기 물건 만들고 장난감 모빌 이런 거 만들고 그게 끝이고 목욕법 가르쳐주거나 분유 타는 방법이나 모자동실 하면 그런 정도 밖에는 안 가르쳐주니까 아빠도 첫 아이면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있지만 부모로서 그런 교육을 그 시간에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게 조금 생겼으면 하는 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리원에 있으면서요. 굳이 내가 모빌을 만들러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애기들 시작할 때 부모로서의 교육 그런 걸 받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4 번)

“책은 너무 문서화되어 있는 느낌? 요즘은 책을 잘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만화책 같은 육아서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설민석이 쓴 만화 역사책처럼 만화 육아서적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5 번)

“애들이 커가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거를 좀 알면 좋겠어요. 단계를. 예를 들면 이런 작은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다음은 점점 커질 수 있게 요거는 해결해 나가면 어차피 아이들은 또 그 다음 문제가 또 나오니까. 오히려 누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 풀어졌다가도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다 잡고 가게 되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가 일대일로 붙어서 계속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3 번)

저는 ‘부모학교’라는 게 생기면 좋겠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부모학교에서 제대로 배워야 하고 무조건 배워야 하는 걸로 말이에요. 부모교육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맞았네’ ‘내가 하는게 잘못되었네’ 하고 아이를 대하는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저는 ‘마음 사용하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8 번)

참여자들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부모교육이 출산과 더불어 필요함을 인식해 조리원에서부터 불필요한 교육 대신 실질적인 부모교육 도입의 바램과 TV 프로그램처럼 양육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중적인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의 효능감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과 자신이 자녀와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경험적 지식을 올바르게 재구성시킨다면 어머니 본인만의 가치 있는 양육지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너무 많은 양육정보들 가운데서 꼭 필요한 양육지식과 정보를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참여자들 또한 잘못된 지식과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실패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도움을 습득하고 싶어 했으며 효능감을 가지고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결국 이 시대 어머니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어머니들 스스로 쉽고 빠른 방식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정보와 거짓 정보들을 선별해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꾸준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녀양육과정에 필요한 양육지식을 익히고 기본적인 양육지식을 통해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가야 할 것이다.

하위범주 다-3.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 가기

참여자들은 양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였고 연구하는 시점이 전세계적인 감염병으로 이례적인 국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라 그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었다. 당장 눈 앞에 닥친 자녀의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성, 건강, 교육문제 나아가 자녀가 자라는 미래 환경까지 단순한 고민이 아닌 본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과도한 정보가 넘쳐나고 자녀의 스마트 기기의 사용의 증가 등 IT 산업의 발달로 인한 환경적 요소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양육지원에 관한 의견에 자녀들에게 건강한 환경,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바라고 있었다.

“애들의 놀이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무로 된 실내놀이터처럼 그런 것들이 저쪽에도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것도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키즈카페가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런 거는 그냥 단순히 노는 데 짱아요. 그러니까 학습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 아니면 굳이 키즈카페를 안 가더라도 자연에서 막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이 근처근처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4 번)

“교육 자체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역할을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느꼈어요. 아이에게 따뜻하게 애정을 주지 못하는 엄마에게 무엇보다 육종지(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데서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도 그런 식으로 교육했음 해요. 부모처럼 현실적으로 마음적으로. 그게 부모나 교사의 아동학대문제에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참여자 2 번)

“저는 코로나처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계속 핸드폰만 보려고 하고 나가기에는 불안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8 번)

참여자들은 0~3 세 영유아 어머니 답게 아이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 물질적인 방향보다 환경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보육교사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 자녀양육의 경험으로 교사 때와 다른 시각으로 정기적인 교사 교육에서 ‘아동을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방향’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가정과 기관 모든 곳에서 결핍된 애정을 경험하지 않도록 ‘부모교육’과 더불어 ‘교사교육’의 중요성도 인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없는 시점에 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의 신체적 활동공간의 필요성을 피력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여러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영유아 어머니들의 또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요즘은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과 더불어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요즘은 실내공간은 물론 실외에서도 가족 모두가 함께 있어도 각자의 스마트 기기와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참여자들이 제시한 자녀들에 대한 환경적인 지원에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제안한 것처럼 영유아에게는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 부분일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방법을 혼합한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구 설계모형 중 순차적 설명 혼합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양적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 다음 그것을 질적연구와 함께 더 자세히 설명하여 결과를 굳건히 하는 방법(Creswell, 2017, 재인용)이다. 양적연구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1 차년도(2008)부터 3 차년도(2010)까지 총 3 개년도 데이터 중 무응답을 제외한 최종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0~3 세 영유아 어머니 1537 명이고, 이 결과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목적표집을 통해 모집한 8 명의 0~3 세 영유아 어머니를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탐구하였다.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혼합연구방법 적용을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에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발달궤적을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육지식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질적연구에서 0~3 세 영유아 어머니들은 자녀의 양육과정에 양육지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한 양육지식과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습득하고 있으며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 경험적 지식까지 더해져서 양육기간동안 양육지식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양적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양육기간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로부터 양육정보 및 지식의 획득과 양육경험의 축적으로 인하여 양육지식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양미선, 김양은, 2012; 최효식 외, 2013; 이정숙 외, 2016)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어머니들의 경우 양육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고 첫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경우 양육경험의 부족으로 양육초기에는 인터넷이나 양육 전문 서적 등을 통해 양육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초기 양육지식은 낮지만, 이후 양육과정에서 양육을 경험한 주변 이웃, 보육관련 기관, 부모교육, 온라인 임신육아카페, 지역맘카페 등 다양한 경로에서 양육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양육지식이 축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IT산업의 발달로 영유아 어머니들은 대부분 다른 경로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양육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는 현대 사회의 어머니들이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고 빠르게 육아 전문 서적을 볼 수 있고 육아전문가와 양육경험자로부터 자녀양육 기술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며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임신·출산·양육의 경험과 어머니 정체성의 상실 등 비슷한 정서적 체험을 하는 이들은 ‘OO엄마’ 또는 ‘OO맘’이라는 이름을 달고 양육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유대를 맺는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SNS, 카카오톡, 육아정보카페가 더욱 활발해졌는데 이것은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에 고립된 가정에서 육아 중인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홍남희(2012)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첫째 자녀 양육과는 달리 어머니들은 양육경험으로 인한 지식의 축적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양육경험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부모의 지식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부모는 자신의 지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하였다(Goodnow, 1988). 자녀양육에 대해 부모가 경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해 나가는 현실 검증의 과정으로 보기도 하였다(Stolz, 1967). 즉, 어머니는 자녀와의 양육경험을 통해 아동발달에 대한 기존의 가치와 사고를 재구성함으로써 어머니만의 새로운 지식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는 김모아(2010)의 연구와도 흐름을 함께 하는 결과이다. 양적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므로 어머니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정확하고 올바른 양육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녀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해 나가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는다면 자녀양육에 필요한 양육지식으로의 가치가 더욱 발휘하게 될 것이다.

둘째,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에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발달궤적을 분석한 결과 양육기간동안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질적연구에서 0~3 세 영유아 어머니는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양육스트레스와 영아기와 걸음마기 자녀의 양육특성상 주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가중됨으로써 생기는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양적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출산 후

3년동안 일정한 선행 패턴을 가지고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최효식 외, 2013; 이정숙 외, 2016, Crnic, Booth, 1991;)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첫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경우 양육경험의 부족으로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양육역할의 부족으로 인한 양육죄책감을 가지게 되며 가정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영아기부터 걸음마기에 해당하는 0~3 세의 시기가 어머니의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게 해 이 시기의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는 일정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0~3 세 영유아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가심이나 짜증, 화냄을 느끼고 자책하며 미안함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와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반복되므로 이로 인해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므로 양육스트레스를 이와 같은 정서로 정의된다고 보고한 안지영(200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영유아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일상생활 중 성가심을 느끼고 화냄과 짜증을 냄으로 인해 양육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양육역할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양육이 있어 부모역할과 책임은 모두 부모에게 있다고 인식되는 사회분위기와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지 못하거나, 자녀를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에 자녀에 대한 양육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는 윤정선(2017)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며 이런 양육죄책감은 양육스트레스의 일부로 다루어져 연구되어 왔다고 보고한 김혜진(2005) 연구와도 일치한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도 갖게 하지만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요구의 증가, 수면의 부족이나 방해, 더 많은 재정적 비용의 필요 등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경험할 수 있고 부모의 개인 생활과 여가 활용의 기회의 제약 등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이슬기, 2005). 질적연구에서 영유아 어머니들은 자녀의 양육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자녀와 긍정적인 양육경험도 하지만 다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로감과 어머니 개인의 시간 부족, 활동의 한계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어머니 스스로 개인적인 변화들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 사회에서 추구하는 ‘남녀평등’과 ‘부부공동육아’는 영아기와 걸음마기 아동의 특징인 주양육자인

어머니에게 더욱 의존하는 자녀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국가의 양육지원제도조차 활용할 수 없음에 더욱 양육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에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발달궤적을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 양육행동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질적연구에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이 시기 어머니들이 양육지식의 부족, 양육스트레스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정적 양육행동의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양적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사회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나이 1~3세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 특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최인숙, 2015, 서진영, 2018, Paulson & Bazemore, 2010;)들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경우 양육지식의 부족, 양육스트레스의 증가, 어머니의 우울, 아동의 기질, 아동의 발달특성, 부모의 자아존중감 등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특히 자녀가 1~3세까지는 출산으로 인한 우울, 영아기부터 걸음마기동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점진적 증가와 핵가족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한 양육지식 습득의 기회 부족, 양육에 대한 자신감 저하, 어머니 개인의 정체성 등으로 이 시기의 어머니들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양육지식의 점진적 증가만으로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향상시키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양육초기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이후 긍정적 양육행동의 변화 정도가 느리게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양육초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감소가 적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1~4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연구한 최인숙(2015)의 연구결과에서 초기에 긍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해서 높은 감소율 또는 낮은 감소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나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가 2~3세경에는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3~4세에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와 일부 일맥상통하며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이 0~3세인 점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으로 3세 이후에는 긍정적 양육행동의 안정적인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감, 경제적인 이유, 성문제 또는 직업문제 등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한다(조성연, 2006). 0~3 세 영유아 어머니들은 원부모에 의해 경험된 부정적

양육경험, 미해결된 감정, 부모와 다른 기질이거나 어려운 기질의 자녀로 인한 부모역할의 어려움과 양육지식의 부족, 양육스트레스의 증가,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의 비적절한 훈육방법 사용으로 자녀와의 마찰, 아버지의 비협조적인 양육 참여, 가족 기능의 약화, 가족구조의 축소 등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이기적인 양육환경 등으로 인한 부정적 양육행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원부모에 대한 양육경험이 양육행동을 결정한다고 보고한 정미경, 김영희(2003)의 연구와 영아기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능력에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양육지식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방은주(2018)의 연구와 한국의 가족문화는 아직까지 양육에 대한 역할을 어머니에게 전가한다고 보고한 정순진(201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김모아(2010)의 연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였고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부모효능감을 가지고 양육과정에서 오는 여러가지 변화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적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았고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시간에 경과에 따른 변화, 즉 종단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점차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에서 0~3 세 영유아 어머니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육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있지만 정확하고 바른 양육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육의 자신감을 잃고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를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어 양적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해 양육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무분별하고 잘못된 지식을 습득할 가능성을 초래해 잘못된 지식과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한 서혜성(2014)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며 양육지식이 부모의 불안심리와 양육죄책감을 감소시키고 어머니 역할수행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김정미 외, 2013; 이희정, 2014; 이정숙 외, 2016)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첫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양육지식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 이송은(2012)의 연구와 스마트폰으로 습득한 양육지식이 정확하고 올바른 가치관에 기반이 된 지식을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서혜성(2014)의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0~3 세 영유아 어머니들은 현대 사회의 가족형태의 변화함에 따라 양육지식의 경험적, 정보적 지식의 부족으로 자녀의 양육과정에 양육지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필요한 양육지식과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습득하고 있으며 양육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나 정보를 통해 얻어진 정보적 양육지식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 경험적 양육지식을 함께 재구성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높은 경우 양육부담감을 감소시키며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게 된다. 전문화된 학교 교육으로 인해 유아교육이나 아동 및 보육 관련 전공이 아니면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채 부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 서혜성(2014)의 연구에서처럼 질적연구에서 보육 관련 전공자인 0~3 세 영유아 어머니는 양육초기 높은 양육지식으로 자녀 양육에 부담감이 낮았으며 그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적다고 보고하였다.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자녀의 발달을 위해 부모역할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양육수행의 자신감을 높여 효과적인 양육수행을 하게 하며 나아가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기술을 사용하게 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돕고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변화율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해서 양육스트레스의 높은 감소율 또는 낮은 감소율로, 높은 증가율 또는 낮은 증가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선 결과인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영아기와 걸음마기를 양육하는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점점 증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시기동안 영유아 어머니들은 양육지식의 습득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적연구에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반대로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낮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연구에서 0~3세 영유아 어머니가 원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 양육경험, 스마트폰 등으로 부정확한 양육지식 습득으로 인해 양육지식의 부족을 느끼고 이로 인해 부정적 양육행동을 하고 있고, 또한 내 아이만 아는 이기적인 양육문화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해 올바른 양육행동을 하지 않는 부모가 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양적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행동 결정요인의 과정 모델이 제시되면서 부모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어린 시절 경험과 사회·문화적 배경, 그 가정의 사회·경제적 위치 등에 따라 양육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부모의 성격특성 중 부모 자신의 아동기 경험이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되었다(Belsky, 1984). 양육행동 결정과정 모델에서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부모가 어린 시절 경험한 원부모의 양육방식을 강조하였고(Belsky, Pensky, 1990),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정서능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어머니 자신의 어린 시절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 및 양육경험임이 밝혀졌다(정운주, 2008; Cowan, Cohn, Cowan, & Pearson, 1996). 어머니의 원부모로부터 받은 양육경험들은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원부모로부터 부정적 양육경험과 미해결된 감정은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부족으로 나타나며 이는 자녀양육과정에서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경험적 양육지식이 중요하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경험은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원부모로부터 긍정적 양육경험으로 인한 양육지식의 중요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기술 사용과 발달에 적절한 환경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자녀양육을 수행하게 하는 기반이 되며,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효과적인 양육수행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와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민현숙, 문영경, 2009)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근대사회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여성 노동인구는 급증하고 여성해방운동으로 인해 자녀들의 양육환경 또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등한시되어왔던 여성들의 교육향상은 이러한 변화에 일조하였다.

높아진 교육열로 자녀 교육에 열성을 다하는 어머니들이 늘어나고 예전에 비해 양육의 책임과 의무에 공감하는 아버지들의 수는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모성 신화'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곳이 대한민국이다(정순진, 2008). 이러한 모성 신화로 맹목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어머니로 인해 부모들은 갈등이 잦아지며 가족 내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부모의 갈등을 접하면서 자란 자녀의 경우 사소한 갈등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가족 간의 관계, 사회 속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회문화는 이기적인 양육문화를 만들게 되며 이 또한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사회성의 부족으로 나타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양육지식 습득, 정보교류 등을 이유로 어머니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부정확한 양육지식을 습득하여 양육지식 부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연구> (현은자, 김태영, 조메리명희, 박은미, 2011)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이 가족의 친밀도와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는 연구결과와 디지털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가족일수록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나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류미현, 조향숙, 2014)처럼 가정 전반적인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적연구에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초기치는 양육행동의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어머니의 양육지식 초기치와 변화율은 양육행동 변화율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초기 양육지식이 높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은 증가율 또는 낮은 감소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해서 긍정적 양육행동의 높은 감소율 또는 낮은 감소율로, 높은 증가율 또는 낮은 증가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즉,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초기치가 높거나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시간에 변화에 따라 높아지더라도 0~3세 영유아 어머니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은 감소율 또는 낮은 감소율을 보일 수 있으며 반대로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초기치가 낮거나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시간에 변화에 따라 낮아지더라도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다른 요인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질적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긍정적 양육행동을 위해 노력하는 바에 따라 양육행동이 달리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0~3세 영유아 어머니는 자녀의 영아기와 걸음마기 시기에 양육지식의 부족으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초래하게 되지만 어머니 스스로 양육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과 어머니의 가족, 주변이웃,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자원을 얻으며 긍정적 양육행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가족, 친구, 친척, 이웃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통한 심리적 안정을 보고한 송종용, 원효택(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지를 얻는다고(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 우수희, 2015) 하였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4개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첫째,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로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어 자신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행위로 존중감, 애정, 신뢰, 경청, 관심, 배려의 제공을 말할 수 있으며 둘째, 정보적 지지(informational support)로 개인이나 환경으로부터 기대되는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충고, 제안, 정보, 지식, 제안을 의미하며 셋째, 물질적 지지(tangible support)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직접 도움을 주는 행위로서 현물, 현금, 노동력, 시간, 환경 개선 등의 원조를 넷째, 평가적 지지(appraisal support)는 개인의 역할 수행과 행위에 관한 구체적 평가 정보를 전달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피드백, 사회적 비교의 제공을 의미한다(우수희, 2015). 따라서 사회적 지지에서 정보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영유아 어머니에게 양육지식과 정보로 대체될 수 있어 0~3세 영유아 어머니들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전문적 양육지식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섯째,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긍정적 양육행동은 낮아지며 양육초기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또한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긍정적 양육행동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시간 경과에 따른 증가는 종단적으로 긍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연구 결과 알 수 있었다. 질적연구에서 0~3 세 영유아 어머니는 자녀의 다른 기질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 양육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부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양적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부정적 양육행동의 증가시키며 양육스트레스의 점진적인 증가는 시간

경과에 따라 부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지만 반대로 양육스트레스의 점진적인 감소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이정윤, 2008; 강희경, 2012; 김표민, 2015)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박진아 외, 2009; 이정희, 2000; 안혜진, 20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0~3 세 영유아 어머니들은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의 내적 긴장과 일상적인 양육과정에서 오는 신체적 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적 어려움, 자녀의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특히 0~3 세 영유아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증가로 자녀들에게 부정적 양육행동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것은 영유아 어머니들은 주요 생활사건의 경험보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의 반복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 안지영(2000)의 연구와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은 긍정적인 경험도 하게 하지만 여러가지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부정적인 경험도 하게 한다고 보고한 이슬기(2005)의 연구와 일치한다.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은 주요한 생활사건에 의한 스트레스보다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더 크게 작용하여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자녀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은 물론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과도 관련되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장선희, 2018)

따라서, 0~3 세 영유아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원인에서 지각될 수 있으며 양육으로 인한 주요원인이지만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더 주된 원인이 되며, 이러한 일상적인 스트레스들이 반복되면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성가심, 짜증, 화냄으로 표현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반대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여러 방법을 통해 줄이게 된다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늘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은 가족을 통해 성장하고, 가족 안에서 기본적인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며, 가족 안에서 경험한 욕구의 충족은 개인의 삶의 질과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성은 개인, 가족을 넘어 사회로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가족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유영주, 2004).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통해 양육스트레스 해소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가고 가족 간의 지지와 가족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들은 양육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으며 가족,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변화와 심리적 불안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가족 간의 지지와 가족기능의 강화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한 이후승(2003), 우수희(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0~3 세 영유아 어머니는 긍정적인 어머니 역할의 수행을 위해 양육지식의 습득, 양육스트레스의 감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위한 자기성찰을 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올바른 양육과정을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쉽고 재미있는 부모교육, 자녀를 위한 건강한 환경 등 여러가지 사회적, 환경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양육스트레스의 자각 정도에 따라 양육행동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선희(2018)의 연구와 부모성찰을 통해 부모의 건강한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Salde(2008)의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올바른 어머니 역할의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육지식과 정보를 쉽고 편하게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정확한 양육지식을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을 키우는 기술이 필요하며,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양육죄책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경로에서 오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어머니를 위한 스트레스 해소프로그램들의 지원이 요구되며, 자녀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가 0~3 세 영유아기에는 어머니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가족과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며 부부공동육아, 가족의 사회적 지지, 국가적 차원에서의 양육지원제도의 확대 등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수행을 위한 사회적 관심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고 또한 이 시기의 어머니는 시간이 부족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양육지식의 습득을 위한 기술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위해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어머니만의 시간을 지원해주며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부족은 양육스트레스의 증가와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하고 수많은 양육지식을 접하게 되면 올바른 가치관의 양육지식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양육지식은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적 지식도 포함이 되므로 어머니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본인에게 맞게 올바른 지식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어머니 스스로가 정확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할 것이다.

둘째,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역할수행과정에서 양육지식, 자녀가치, 자녀미래기대, 가구소득, 아버지 양육참여, 결혼 만족도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녀의 발달,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적 생활 속에서 발생하게 되며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것 중에 원부모를 통해 경험한 부정적 양육경험과 양육죄책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부모를 통해 경험한 부정적 양육경험은 다시 말해 양육지식이 부족을 초래하므로 양육행동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육지식의 부족을 경험하는 0~3 세 영유아 어머니들은 원부모로부터의 부정적 양육경험이 자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죄책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의 증가의 결과도 보여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세대에 걸쳐 전이가 되므로 자녀에게 똑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올바른 양육지식을 습득하고 자기성찰과 치료적 개입을 통해 세대간 전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넷째,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전통사회에서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가족, 친척,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현대사회에서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과 지역사회를 통한 사회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0~3 세 영유아 어머니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통해 양육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양육역할 과정에서 가족, 이웃, 사회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 양육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다섯째,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긍정적인 방향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부담을 덜어줄 가족적, 사회적, 국가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0~3 세 영유아 어머니는 자녀의 영유아기 동안 개인 생활의 부족, 양육과정에서의 신체적, 심리적 피로를 경험하고 있어 이를 덜어줄 아버지의 적극적인 육아참여, 어머니의 양육 전반적 과정에 필요한 바른 양육지식의 습득을 도와줄 교육프로그램,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감정적 변화, 일상적 피로에서 오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줄 지원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한 환경적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자녀가 이른바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도 부모의 양육에 별로 탁월한 점이 없을 수도 있고, 자녀의 삶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의 양육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홍순범, 2015). 자녀의 양육의 성공여부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도 없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에게 모두 전가해서는 안 되고 자녀 양육은 사회 모두의 책임이고 의무로 여겨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0~3 세 영유아 어머니를 위한 양육지원 제안 방향을 중심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0~3 세 영유아 어머니 스스로의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자발적 참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면담에서 다양한 기관에서의 부모교육과 부모지원서비스 등이 있음에서 참여에 대한 부담감, 참여의 불필요성으로 양육지식을 습득하는 경험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정확하고 바른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초중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의 비중이 늘어나고, 지역사회서비스로 부모성장을 돕는 바우처 지원이 확장되고 부모교육으로 인한 지원은 많아지고 있으나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어머니 스스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양육지식이나 정보를 얻으려 하거나 온라인 임신육아카페 또는 지역맘카페에서 또래를 양육하는 엄마들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으려 하지 말고 육아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다양하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양육지식 속에서 바르고 정확한 양육지식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부모들이 부모교육을 본인의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 자녀 양육을 위해 필수교육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가족기능의 약화로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가족형태의 변화로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경험하지 못하는 등 가족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모들에게 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수행과정, 부부공동육아, 자녀의 역할에 대해 필수교육을 통해 인지하게 한다면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정확한 양육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나아가 자녀 출산, 자녀 양육 기피 등의 문제를 감소시켜 저출산 문제, 아동학대 문제 등의 사회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저출산 대책으로 양육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는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영유아 어머니 관련 선행연구에서 양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양육스트레스이며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에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현재에도 임신, 출산 등의 바우처로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머니들 본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0~3 세 영유아 자녀의 양육기간동안 어머니의 경제적 활동의 제한됨으로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경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들을 위한 지원대책만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면 저출산 문제, 아동학대 문제, 청소년 문제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어머니만 주된 양육자로 여기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머니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과정동안 어머니 개인에 대해 희생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의 육아는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나아가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한다. 현대사회로의 변화가 급변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어머니만을 주양육자로 보고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 떠넘기고 부부공동육아를 지향하지만 가부장적 시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역할을 별개로 보는 사회적 시각이 변화되어 사회 모두가 아동의 양육에 함께하고 미래의 인재를 키워가는데 국가가 앞장서서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많은 함의와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여러 선행 연구에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논의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어머니 역할수행을 위해서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아정체성, 우울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양적연구에서 더 다양한 어머니

양육변인(외적 변인, 내적 변인)을 다루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로 더욱 다양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관련 종속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0~3세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종단적 분석을 다루었는데 0~3 세의 영유아기 아동과 4~6 세의 유아기 아동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종단적 변화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된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발달궤적에 대해 0 세~6 세까지의 영유아기 전반에 걸친 종단적 분석 연구로 실시한다면 학령 전 아동 어머니의 출산부터 종단적으로 보여지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종단적 분석을 혼합연구방법을 통하여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이 종단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면담을 통해 실제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경험적 의미를 주제 분석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검증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해 상호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양육지식을 증가시키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0~3 세 영유아 어머니에게 다양한 양육관련 부모교육과 바른 양육지식의 습득기술을 제공하고 양육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0~3 세 영유아 어머니에게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가족스트레스연구회(1994). **엄마의 스트레스**. 서울: 창지사.
- 강두이(2019). 공립유치원 원감의 역할 경험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지애(2016). 젊은 세대 어머니들의 육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경험.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수진(2007).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유아의 놀이성,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연희, 이종희(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01-216.
- 권정윤, 장영희(2007).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87-99.
- 김미숙(2006).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통합에 대하여. **교육사회학연구**, 16(3), 43-64.
- 김미정, 하지민(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대상관계와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8(1), 283-303.
- 김민정, 도현심, 신나나, 최미경(2013).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2), 101-119.
- 김선애, 한유진(2009). 아버지의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54-64.
- 김수민(2019).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말 자각인식 보고에 대한 주제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2015). 자녀 양육을 경험하고 재취업한 유아교사의 변화와 갈등.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이, 전정민, 이선미(2017).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에 따른 유아의 인지능력 차이 및 부모역할의 상관관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2), 75-100.
- 김영주, 송연숙(2007). 1 세-3 세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지식과 양육 스트레스.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475-493.

- 김은정(2004). 아버지의 양육생산성 및 양육지식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현(2014). 취업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시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문승미, 김유정, 안선희(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5), 79-98.
- 김지현(2017). 유아기 부모의 부모역량 인식과 실행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숙, 김지은, 연미희, 이인수(2017). **나도 부모가 처음이야**. 경기: 어가.
- 김태련 외 역. Anne M. Jernberg & Phillis B. Both 공저. 2001. **테라플레이 놀이치료**. 서울: 학지사.
- 김혜진(2005).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와 전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200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 교육과 지원**. 서울: 파란마음.
- 노영혜(2019).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적응 과정.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미현, 조향숙(2014).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47-68.
- 민현숙, 문영경(2009).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소**, 3(1): 137-158.
- 민현숙, 문영경(2013).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 22(1), 43-56.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림(2014). 어머니의 양육역할수행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유아의 또래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림(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지식, 부모역할지능, 양육참여 간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연(2005). 영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수행에 대한 귀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및 양육지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은주(2018).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양육효능감과 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성희(199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대인불안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영민(2011). 첫 자녀 임신에서부터 조기 양육까지 ‘어머니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진영, 이주연(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및 양육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 369-389

서혜성(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과 스마트폰 사용.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선민정(2019). 기혼 취업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의지에 관한 혼합연구: 일·가정 양립 갈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종용, 원호택(1988).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성취과제의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심리학회지**, 7(1), 21-30

송연숙, 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송영주, 이미란, 천희영(2014). 첫 자녀 출산 후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아동학회지**, 35(5), 15-35.

심지은(2018). 영아기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육아인식 및 현황과 자녀양육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미선, 김양은(2012).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229~247

오은애(2013). 12개월 미만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옥경희, 천희영(2012). 가구 소득에 따른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연구. **아동학회지**, 33(1), 205-221.

우수희(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및 양육효능감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유영, 최진아, 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 (1), 51-61.

우지혜(201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영주(2004). 한국 건강가정의 의미와 방향 모색.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UN 세계가정의 해, 10.

윤정선(2017). 보육교사의 자녀양육태도와 가족양육지원 및 양육죄책감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정원(2015).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형주(2002).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가정의 양육환경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형주, 조복희(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가정의 양육환경 및 그 관계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2), 59-88.

이명선, 고문희, 손행미, 김주현, 강성례, 오상은, 박은영, 오세은, 장혜은(2018). 질적연구 수행하기. 서울: 수문사.

이미경(2012). 부모간 양육 태도 일치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영(2019).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이모아(2010). 부모의 양육지식과 양육참여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미, 장정미(2009). 임신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의 관계성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51-273.

이송은(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및 부모역할 인식과 그에 따른 양육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슬기(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양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경(2015). 어머니의 양육행동유형과 유아의 창의적 리더십 및 자아개념간의 관계. 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숙, 방영숙, 배장오(2016).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8 (3), 27-42.

이정아(2019). 아동학대 부모의 상담 후 변화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주연(200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5), 35-48.

이주연, 이석(2010).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정보 습득과 양육지식. **아동학회지**, 31(4), 179-197.

이학식, 임지훈(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서울: 법문사

이후승(2003).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지각한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정(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3(2), 87-115.

장선희(201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지혜(2007). 영아 발달수준에 대한 부모의 지식 정확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계숙, 문혁준, 김명애, 김혜금, 심희옥, 안효진, 양성은, 이정희, 이희선, 정태희, 제경숙, 한세영 (2007). **부모교육**. 서울: 창지사.

정금자, 박미라(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도덕성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0(80), 43-64.

정미경, 김영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라, 김경숙, 이방실(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원에 대한 질적연구. **유아교육연구학회지**, 33(2), 163-189.

정미라, 최혜정, 강수경(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5(4), 179-199.

- 정순진(2008). 한국형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주(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6(3), 73-85.
- 정윤주, 채진영(2010). 어머니의 부모역할 적응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제 1 회 한국아동패널학술대회자료집**, 83-101.
- 조현진(2018). 어머니의 양육역할 수행과 유아의 정서지능 및 또래갈등 해결전략 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화(2020).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양육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혼합연구방법 적용-.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유리(2005). 어머니의 육아방식 및 양육지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2016). 중증뇌병변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효식, 연은모, 권수진, 홍운정(201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7(2), 21-45.
- 한은규(2004).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미숙(2004). 유아기 부모를 위한 부모역할지능척도(PIS)의 개발. **아동학회지**, 25(6), 15-34.
- 홍남희(2012). 초기 모성수행기 여성들의 스마트폰 이용. 미디어, **젠더 & 문화**, 21, 135-164.
- 홍다음(2018).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및 공간구성 분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순범(2015). **만능양육**. 경기: 위즈덤하우스.
- 홍순옥, 김성혜(2008). 어머니 배경 변인에 따른 양육지식과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6, 154-154.
- 황성온, 황지온(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 간의 인과적 종단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6(4), 163-176.
- Abbas Tashakkori,& Charles Teddlie(1998). *The use of mixed methods research*. 엄시창

- 역(2001). **통합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Abidin, R. R.(1992).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al Psychology, 19*(4), 298-301.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Pensky. E.(1990).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R. A. Hinde & J. Steve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Oxford, (pp. 193-217)*
- Benasich A A,& Brooks-Gunn J.(1996). Maternal Attitudes and Knowledge of Child-Rearing: Associations with Family and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67*(3), 1186-1205.
-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tt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wan, P. A., Cohn, D. A., Cowan, C. P., & Pearson, J. L.(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nk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53-63.
- Creswell. J. W.(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2rd ed)*. Thousand Oaks, CA: Sage.
- Creswell. J. W. (2014).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4th ed.)*. California: SAGE P.I.
- 정종진 외 역(2017). **연구방법 질적 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Crnic, K.A.,& Booth,C.L.(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 Jin, Lihua.(2014). 국내 신문에 나타난 간호사 관련 주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Macphee, David Lewis.(1984). Mothers acquision and reconstruction of knowledge about infanc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North Carolina.
- McHale, J. P.(1995). Coparenting and triadic interactions during infancy: The roles of marital distress and chil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85.

- Ryff, C.D., & Keyes, C.L.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 York: SAGE Publications, Inc.
- Slade, A. (2006). Reflective parenting program. *Theory and Development Psychoanalytic Inquiry, 26*(4), 640-657.
- Whiteside-Mansell, L., Bradley, R. H., & McKelvey, L. (2009). Parenting and preschool child development: Examination of three low-income U.S. cultural group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1), 48-60.

부록 1. 예비조사 질문지

예비조사 질문지							
개인 질문	이름		나이				
	현재 자녀의 연령을 적어 주세요. (우리나라 나이로)		자녀 1 연령: 세, 자녀 2 연령: 세, 자녀 3 연령: 세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몇 명인가요?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이상				
	현재 부모 모두 경제 활동(맞벌이) 중에 계십니까?		① 네 ② 아니오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주양육자는 누구인가요?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조부모 ④ 기타				
다음은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검사지의 질문내용입니다. 논문의 예비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자료이며 각 질문지를 읽고 체크 부탁드립니다.							
양육 지식 질문	1. 아이들은 말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줘도 얼마 동안은 종종 틀린 말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2. 아기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단어들만 이해한다 3. 아이가 낯선 상황에서 수줍어하거나 칭얼댄다면 이는 대개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4.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은 그 아이의 지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5. 아기가 아주 어린 경우,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방식은 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6. 동생이 태어나면 아이들은 밤에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빨기도 한다 7. 대부분의 미숙아들은 결국에는 학대받거나 방치되거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지체된다(미숙아는 체중이 2.5kg 이 못 된 채 태어난 아기와 임신 37 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를 통칭해서 말함) 8. 건강한 아기라 하더라도 새로운 음식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대개 그 음식을 뱉어내기도 한다 9. 아기의 성격 또는 기질은 생후 6개월이면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잘 변하지 않는다 10. 부모가 아기에게 생후 첫 몇 개월 동안 반응하는 방식은 이후 아기가 행복하고 잘 적응된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우울하고 부적응적인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다 11. 아이들의 모든 언어는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함으로써 습득된다 12. 소음이 심하거나 볼거리가 너무 많으면 아기는 자기 주변 상황에 집중하지 못한다 13. 정상적인 아이 중에서도 몇몇 아이들은 안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아니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양육 스트레스 질문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양 육 행 동 질 문	1.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2. 나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 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1	2	3	4	5
	3.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준다.	1	2	3	4	5
	4.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1	2	3	4	5
	5.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다음은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신념, 양육행동 검사지의 질문내용입니다.
논문의 예비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자료이며 각 질문지를 읽고 체크 부탁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부 양 육 참 여	1.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1	2	3	4	5
	2.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1	2	3	4	5
	3.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1	2	3	4	5
	4.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	1	2	3	4	5

양 육 신 념	1.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나타내는 견해를 진술한 것입니다. 귀하는 둘 중 어디에 더 동의하십니까? 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②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1) 2) 3) 4) 5)										
	2. 다음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5가지만 골라 주십시오(우선순위 없이 선택).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1. 예의바른 생활습관</td> <td style="width: 50%;">2. 독립심</td> </tr> <tr> <td>3. 근면함</td> <td>4. 책임감</td> </tr> <tr> <td>5. 상상력</td> <td>6.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td> </tr> <tr> <td>7.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td> <td>8. 결단력과 끈기</td> </tr> <tr> <td>9. 종교적 신념</td> <td>10. 이타심</td> </tr> <tr> <td>11. 어른 말씀 잘 듣기</td> <td></td> </tr> </table>		1. 예의바른 생활습관	2. 독립심	3. 근면함	4. 책임감	5. 상상력	6.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7.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8. 결단력과 끈기	9. 종교적 신념	10. 이타심
1. 예의바른 생활습관	2. 독립심											
3. 근면함	4. 책임감											
5. 상상력	6.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7.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8. 결단력과 끈기											
9. 종교적 신념	10. 이타심											
11. 어른 말씀 잘 듣기												

매우 원한다(1 점), 다소 원한다(2 점), 별로 개의치 않는다(3 점), 전혀 개의치 않는다(4 점)

자 녀 의 미 래 기 대	- 우리 ○○는 장래에....				
	1. 돈을 잘 번다.	1	2	3	4
	2.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	1	2	3	4
	3.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1	2	3	4
	4.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1	2	3	4
	5.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1	2	3	4
	6.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더 중시한다.	1	2	3	4

제가 현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에서 석사과정 4학기차 재학중이며 이번 학기에 논문 작성을 위해 자료를 모집하고 있어서 영유아 부모님께 간단한 질문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신념, 자녀의 미래기대 등에 대한 변인으로 논문을 준비 중이어서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록 2. 면담 질문지

면담 질문지

면담 단계	면담 질문 내용	면담 질문 영역
면담 초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연령, 성별과 형제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 현재 양육에 필요한 양육지식은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나요? - 자녀를 양육할 때 양육지식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지식의 부족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는지 경험하신 바를 들려주시겠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양육경험 ⇒ 양육지식 경로 ⇒ 양육지식 영향 ⇒ 양육지식 → 양육스트레스
면담 중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지식이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본인의 양육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 본인의 양육행동이 자녀와 갈등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 - 본인의 양육행동이 자녀와 갈등 상황에서 훈육에 실패한 경험 - 양육관련 지식을 습득할 기회나 교육의 경험이 있었으면 본인의 양육 행동에 어떤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 양육행동 ⇒ 긍정적 양육행동 ⇒ 부정적 양육행동 ⇒ 양육지식 → 양육행동
면담 종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행복하게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외 영유아 어머니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인스트레스 완화 등) - 면담 관련 질문과 궁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양육경험 ⇒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지원 제안 ⇒ 어머니를 위한 양육프로그램 제안

연구대상자(참여자) 동의서

연구주제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종단적 분석: 혼합연구방법 적용

연구자

배아란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석사과정)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어머니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한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면담하여 혼합 연구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양육관련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한 현재까지의 양육행동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1 회 혹은 2 회의 면담을 할 예정이며, 각 면담 시간은 1 ~ 2 시간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면담 내용은 녹음되며, 녹음된 내용은 본 연구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참여자들은 모두 가명으로 연구논문에 인용됩니다.

면담 중에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답을 거절할 수 있으며 면담이 녹음된 녹음원본파일은 연구가 끝나는 대로 소각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녹취된 내용은 익명으로 인용될 것이며, 인용된 내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나 ()는 면담에 대한 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고,
면담 도중 대답 하기 싫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0 년 월 일

연구대상자(참여자) : 성명 _____ 서명 _____
연구자 : 성명 _____ 서명 _____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IT industry, infant mothers can easily and quickly acquire parent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but they are confused by too much information and experience parenting stress for various reasons in the process of raising infant. Not only an analysis of the effects between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which are major variables in the upbringing of infant mothers, but also a longitudinal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is needed, and the empirical implications of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of actual infant mothers need to be analy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of infant mothers and explore empirical meanings of actual infant mother's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in order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esults of quantitative research, and to seek ways to understand and support the parenting behavior of infant mothers based on this.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used a mixed research method, a method of mix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First, the longitudinal analysis of infant mother's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was examined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In detail, we wanted to confirm in detail how changes in the infant mother's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are, how changes in the infant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ffect the change in parenting stress, and how changes in the infant mother's stress affect the child's parenting behavior.

Second, the empirical meaning of the actual infant mother's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was explored by the subject analysis method through in-depth interviews. In detail, we also looked at the infant mother's parenting knowledge, how parenting stress affects parenting behavior, factors affecting positive and negative rearing behavior experienced by the infant mother, and what parenting support is required for rearing.

For quantitative research, 1537 infant mothers who responded to all of the first (2008) to third (2010) were used as analysis data among the Korean Children's Panel data conducted by the Child Care Policy Institute.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and technical statistics of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of infant mothers were calculated at each point in time, and the correlation analysis of each variable was conducted. In addition, the multivariate potential growth model was analyzed to estimate the function of change over time for each variable. Later on, the qualitative research included eight infant mothers as participants in the study, and the data collection consisted of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the data analysis used the subject analysis method of subject analysis was used. Quantitative research results from th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parenting knowledge on th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of infant mothers showed that the higher the mother's parenting knowledge, the lower the parenting stress, the higher the parenting behavior, and the mother's

parenting knowledge ultimately gradually reduces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In other words, the mother's upbringing knowledge not only reduces the mother's upbringing stress but also positively acts on the improvement of upbringing behavior. It also plays a positive role in continuously lowering the level of parenting stress for mothers with high parenting knowledge. Second,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parenting behavior of infant mothers showed that the higher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lower the parenting behavior, and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gradually decreases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In addition, it has been shown that if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increases over time,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tends to decrease gradually over time. In other words, for mothers with high parenting stress, the level of parenting behavior is also low, and the increase in parenting stress leads to a decrease in parenting behavio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arenting knowledge of infant mothers showed that the parenting knowledge gradually increased over time, and the parenting knowledge of infant mothers was accumulating the knowledge and knowledge of childcare from the outside over time. However, an analysis of the parenting stress of infant mothers shows that over time, the number of parenting stress increases gradually, indicating that the period of 0-3 year old, which is equivalent to toddlers, makes it difficult for mothers to raise children during this period, showing that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increases gradually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An analysis of the parenting behavior of infant mothers shows that the parenting behavior gradually decreases over time, indicating that in the case of infant mothers,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decrease the parenting behavior.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research that followed the analysis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fant mother's actual experience of parenting knowledge was described as "Taking a Look at the Causes of Lack of Parenting Knowledge". Infant mothers were getting parenting knowledge from their families, neighbors, the Internet, smartphones, childcare books, parents' education, and TV parenting programs, and the difficulties that participants experienced in changing their child-rearing knowledge and knowledge from various information to technologies necessary for child-rearing were categorized into 'various channels of parenting knowledge' and 'doubts in the flood of information'. Second, the infant mother's actual experience of parenting stress was expressed as "Understanding the Cause of the Increase in Parenting Stress". Infant mothers have been experiencing child-rearing stress in the course of their mother's role with various causes and lack of child-rearing knowledge, and the modern society aims for male and female equality and co-parenting, but there are still a variety of child-rearing support systems, but they are reluctant to leave the current point of care to the various causes and emotions of child-rearing stress. Third, the impact of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ress on actual parenting behavior of infants and toddlers' mothers was expressed as "Finding the Negative Factors of Parenting Behavior". Participants were struggling with parenting behavior due to the lack of knowledge in modern society, such as negative parenting experience and selfish parenting culture, and interpreted the negative

impact on parenting behavior due to increased parenting stress in daily life as 'negative effect of parenting knowledge on parenting behavior' and 'negativ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behavior'. Fourth, the infant mother's experience of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was described as "Reviewing the Positive Factors of Parenting Behavior". Infant mothers have difficulty raising children due to a lack of parenting knowledge, but they share experiences, information, and knowledge with their child-rearing comrades, comfort each other, gain strength, build up parenting knowledge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overcome parenting stress. In addition, they categorized their children as 'self-effacing mothers', 'fence of strong families' and 'shortcuts for nurturing' in order to seek positive parenting by being comforted and moved by their growth, gaining strength from their families, and thinking about various support systems.

Through this study, w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arenting knowledge and the need to reduce parenting stress of infant mothers' own efforts and social support are also important for positive parenting behavior. Infant mothers' parenting knowledge is essential to helping mothers raise their children properly, helping them accurately judge their development and promoting their ideal development.

However, while parenting knowledge of infant mothers is increasing over time, various parenting knowledge that is easily and quickly acquired in the information society is rather feared to lead to indiscriminate and inaccurate parenting knowledge acquisition. Changes in family composition in modern society, weakened family functions, and negative parenting experiences caused mother's lack of parenting knowledge, and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too diverse and fast through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influenced mother's parenting knowledge. In addition, the parenting process, which l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increased parenting stress due to various causes such as mother burden, loss of individual identity, physic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in parenting, and difficulties in daily life. In addition, mothers during this period experienced an increase in parenting stress over time due to difficult parenting that led to infants and toddlers, and this gradual increase in parenting stress and a lack of parenting knowledge showed that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during this period decreased over time. The acquisition of incorrect parenting knowledge and increased parenting stress by infant mothers not only increases negative parenting behavior but continues to increase negative parenting behavior in the long run, and the gradual increase in parenting stress increases negative parenting behavior over time.

Therefore, to infant mothers will need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at the family and social level of difficulties in playing the role of mothers, and social attention will be needed to help foster mothers such as co-parenting, family support, and the expansion of child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In addition, infant mothers always experience a lack of time, physical fatigue, and unstable psychology, so they need technical education to accurately and conveniently acquire the necessary parenting knowledge as well as child support that can help ease the mother's childcare burden and reduce parenting stress.